
목숨 건 기아차 비정규직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제3279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1975.47	(−11.18)
코스닥	717.20	(−15.06)
금리(국고채 3년)	1.74	(−0.02)
환율(원·달러)	1190.80	(+14.30)



중국발 화폐전쟁 시작

위안화 환율 이틀새 3.5% 급등… 아시아 금융시장 '멘붕'
화폐가치 떨어뜨려 수출 확대… 전 세계로 확산될 듯
한국, 미 금리인상까지 이중고… 생활물가 급등 우려

중국이 갑자기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와 증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가 환율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수출경기를 포함한 경제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환율과 증시가 이틀 연속 요동쳤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12일 달러·위안 환율을 달러당 6.3306 위안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전날 고시환율인 6.2298 위안보다 1.62%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이틀 사이에 3.51% 절하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이처럼 위안화 가치를 연이틀 평가절하한 것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둔화되고 있는 수출을 회복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런민은행도 11일 평가절하 배경에 대해 "무역 흑자와 위안화 강세는 시장 기대치에서 벗나가고 있다"면서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려 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다분히 수출진흥을 위해 취한 위안화 평가절하에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도 도미노처럼 동반 하락했다. 신흥국 통화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로 이미 하락행진을 거듭하던 터에 위안화까지 절하됨에 따라 '2중의 타격'을 맞은 것이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가치가 1998년 아시아통화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링깃, 싱가포르 달러와 대만 달러, 필리핀 페소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날 하루 환율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했다. 이렇듯 세계가 환율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릴 것이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뉴시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메리카은행(BoA)의 환율연구소 데이비드 우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방아쇠를 당겨 아시아에서 환율전쟁이 시작되면 결코 아시아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절하경쟁이 전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전망이다. 블룸버그의 조사에 응한 금융전략가들도 내년 중반까지 31개 주요 신흥국 가운데 19개국 통화의 가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의 증시도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1.5% 하락했고, 중국 상해증시도 1.2% 떨어졌다. 11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세는 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43.08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증권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1.18포인트(0.53%) 하락한 1975.47로 마감해 5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다.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날(1179.1원)보다 11.7원 오른 1190.8원에 마감했다. 2011년 10월 6일 이후 처음으로 1190원대를 올라선 것이다.

이같은 동요는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시장이자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7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745억6700만 달러에 이르고 전체 수출액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한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위안화 약세가 중국 수입 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엔화 약세에 이은 위안화 약세는 국내 제품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들어 자동차 전자 등 주력수출품이 중국시장에서 고전하는 와중에도 소비재의 수출전망은 비교적 밝았지만 이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래에셋증권 이재훈 연구원은 "최근 대형주들이 고전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이번 중국의 조치로 인해 중국 관련주, 나아가 국내 증시 전망이 함께 어두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수출이 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어 원화 환율이 덩달아 크게 오르면 국내 물가에는 부담을 준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이탈요인까지 겹칠 경우 원화환율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13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현행 기준금리 연 1.50%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환율상승을 다소 억제할 수는 있지만 공산품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반대로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경우 환율의 대폭상승을 유발해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어느정도 불식시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해 서민의 생활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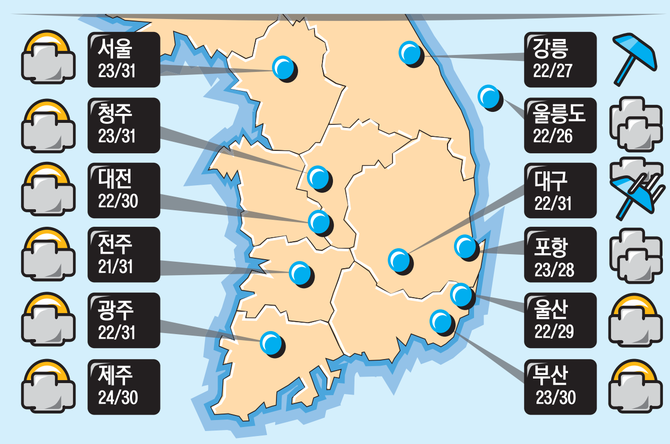
▶관련기사 8, 11, 15면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날씨

8/13 목 일출시각 05:45 일몰시각 19: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정치

▲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길래 사건 나흘 만에 회의를 여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에게 행해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영건** 내각 부총리를 올해 총살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을 표출하다 총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분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 롯데 사태로 인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진통 끝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

▲ 
국내 주식부자 3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누나 부부가 세입자에게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걷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 **문희상**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표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광복 70주년 경축행사**가 14일과 15일 서울 곳곳에서 열림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비롯한 종로와 여의도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 서울시교육청이 남자 교사들이 교내에서 연쇄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서울의 공립 고교에 새 교장을 임명해 학교 정상화에 나섰다.

▲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육사 22대 1, 해사 25.1대 1, 공사 33.9대 1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청년 실업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80대 남성이 **분신**,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정신대 관련 활동을 해왔다.

국제

▲ 
중국이 전날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대폭인 1.86% 기습 인하한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내려 환율이 상승했다. 중국외환교역센터는 12일 달러·위안화 중간가격을 전날보다 1.62%(0.1008위안) 올린 6.3306위안으로 고시했다.

▲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미국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 중국 산시성 상뤄시에서 12일 새벽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40여명이 매몰됐다. 현장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 생존자 구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일본 방위성의 **자위대** 관련 내부 문건에 일본 자위대 병력을 남수단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의 작전에 실전 투입하도록 허용하는 안이 포함된 보고서가 들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가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여성인권단체는 매춘 알선과 매음굴 소유 합법화 지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가 비밀에 싸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TP) 관련 기밀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11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사례금을 내걸었다.

경제

▲ 

연이은 위안화 가치 절하로 외환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7원 오른 1190.8원에 마감,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코스닥지수**가 위안화 충격에 4% 넘게 폭락하며 장중 700선이 무너졌다.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지수**도 11.18포인트(0.56%) 내린 1975.47로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다.

▲ 한국은행이 13일 오전 9시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중국발 환율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 국내은행들이 지난 7월 중 가계에 빌려준 돈이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2분기 어닝쇼크와 중국 위안화 약세에 급락해 전 거래일 대비 590원(9.22%) 내린 5810원에 장을 마쳤다.

▲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M**이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 소식에 날개를 달고 비상 중이다. 방송부문 매출 호조와 음악·공연 부문의 부실 제거 덕분이다.



기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후 일제의 독립투사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추모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

▲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온 비서실장이 최근 바뀌어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라 **중국인** 소비가 많은 화장품과 식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최근 5년 7개월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10건 중 6건은 현대·기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43%로 1위, 기아자동차는 16%로 2위를 기록했다.

▲ 중국의 잇따른 위안화 절하가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일부 스펙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 **LG**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은 우리 군 장병 2명에게 각각 5억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 동대문 패션쇼핑몰 헬로apM 전 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대표 장제윤)가 최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무단 점유하면서 점포주와 입점 상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이권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맥도날드**가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수제 버거 서비스 '시그니처'를 선보였다.

먹고살기 위해 목숨거는 기아차 비정규직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63일째

옥외광고 운영회사 신고로 계단 차단
10일부터 식수·배터리 등 반입 안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비전 위에 올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정몽구 회장의 법원 판결 이행 ▲정 회장의 구속 등을 주장하며 13일 현재 64일째 시위 중이다.

두 노동자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70m 광고탑 위에 올라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0일부터 현재까지 4일 동안 음식과 식수조차 반입이 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11일 최정명씨의 부인이 남편에게 식수와 음식을 먹이고 싶다며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올라갔다. 하지만 계단에는 옥외광고탑을 운영하고 있는 광고 회사가 신고를 해 올라가는 계단을 경찰이 차단했다. 여기에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이 가지고 간 음식을 내팽개치기도 했다.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에게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가족이라도 아무도 들일 수 없고 손해배상금을 주던지 벌칙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기아차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5월 열린 특별교섭에서 기아차 지부와 소하분회는 465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해 조합원 중 85%가 넘는 화성·광주분회의 반대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기아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를 통합해 1사1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분회로 편재돼 기아차지부(정규직)가 나서지 않으면 교섭조차 열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기아차 화성분회는 정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과 제7조 3항'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최종원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분회 노안부장은 "광고회사 사장은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에게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며 광고회사는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해 하루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현재 2000만원이 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10일 아침 갑자기 광고회사와 경찰 10여명이 옥상에 올라가 지장지물을 검사했다. 진압 작전을 위한 조치인 것 같아 염려가 많이 된다"며 "음식은 물론이고 식수, 휴대폰 배터리 조차도 반입이 되지 않아 통신도 두절된 상태라 아래에서 소리를 쳐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든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농성을 하는 두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사내하청분회가 국가인권위에 2번이나 긴급구제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거절 당하고 있어 또 긴급구제 신청을 하고 정 회장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그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라며 "회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노동자 2명은 '항소를 하지 말라'고 시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metroseoul.co.kr

신동주 나흘간의 행적… 일본에선 무슨 일이?

신동빈 상대 '고소장' 접수했을 가능성 높아
신동빈, 대표등재 위법성 드러나면 주총에 영향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11일 저녁 10시반 께 입국했다. 지난 7일 출국 후 4일 만이다.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대리인 자격을 갖고 일본으로 떠난 신 전 부회장의 움직임은 분주했었다.

우선 입국한 날은 금요일로 일본 법무성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8·9일을 기다린 신 전 부회장은 10일 오전 9시께 법무성의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L투자회사 9곳과 6곳의 롯데계열사에 등기변경 신청을 했다.



11일 10시30분 께 입국한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사장. 신 전 부회장은 입국 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응했다. /연합뉴스

신 전 부회장의 L투자회사 9곳에 대한 등기변경은 지난달 31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없이 자신을 12개 L투자회사 모두에 등재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 성격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등기변경 신청을 한 9곳(L1·2·3·7·8·9·10·11·12)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곳이다. 함께 등기변경 신청을 한 일본 롯데 계열사는 롯데·롯데상사·롯데부동산·롯데물산·롯데전략적투자·롯데아이스 등 6곳으로 모두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일본 재계는 이와 같은 신 총괄회장의 조치를 두고 신동빈 회장을 향해 투자부문은 물론 사업부문에서도 몰아내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일 신동빈 회장이 등기변경을 신 총괄회장의 가짜 위임장을 갖고 했을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위임장이 없이 몇몇 이사들만 대동해 위와 같은 등기를 했다면 이는 절차상 문제가 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관한 등기변경은 기존에 법무성에 제시된 대표이사의 직인과 대표이사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달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움직임들은 주총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사회와 사장단들의 지지를 받아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지만 등기과정의 위법성 문제와 신 총괄회장의 건재함이 밝혀진다면 신 회장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의 대리권을 가지고 일본 현지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11일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아버지와 형과의 타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족과 경영은 별도"라며 경영권을 두고 신 총괄회장이나 신 전 부회장과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中 위안화 추가 절하에 '흔들리는 일본' 일본 대표 주가지수 니케이 225는 전날에 이은 중국의 추가 위안화 절하로 인해 1.09% 하락한 20495.40으로 오전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지뢰도발 나흘만에 회의… 靑, 뭐하냐"

유승민, 靑 참모진에 직격탄
찍어내기 이후 은둔 마침표
활동재개 신호탄 분석 솔솔

'청와대 얼라들' 발언으로 청와대의 반감을 샀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국방부에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NSC(국가안보회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길래 (지뢰폭발) 사건 나흘 만에 회의를 여느냐"고 따졌다.

유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찍어내기로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세인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발언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재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전 원내대표의 호통이 터진 곳은 12일 국방부의 현안보고가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유승민, 독기 품었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朴대통령, 순국선열에 묵념
박근혜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유가족과의 오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원내대표는 "(4일) 지뢰도발 발생후 5일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은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희호 여사는 평양을 방문했으며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보고체계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또 군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가 전부이냐"며 "누가 이를 혹독한 조치라고 인정해주겠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현안보고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4일 사고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인 5일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지휘보고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를 예고했다.

또 대북물포작전(기구를 통한 생필품 보내기), 대북삐라살포, 휴전선 전광판 가동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무력을 통한 직접적인 보복은 없다. 한미 양국은 경기 포천 육군훈련장에서 K-2 전차, K-21 장갑차, 수리온 헬기, FA-50 전투기, 다연장로켓(MLRS) 등 최신무기와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팔라딘 자주포, 아파치 헬기, A-10 폭격기 등을 동원해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실시하지만 응징 의지를 표시한다는 의미 정도다.

다만 DMZ 내 작전은 종전의 침투저지 차원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격멸작전으로 바꾼다. 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20여년만에 DMZ 잡목을 불사르는 화공작전도 검토 중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野, 국정원 개혁 재시동

정보위 개혁부터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사태를 계기로 다시 국정원 개혁에 나섰다. 지난 대선 댓글 사건 이후 국정원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대북·해외정보 기능 강화 △국내정보 기능 관련 조직·예산 축소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국회 추천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의 이관 △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 정보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정보지키기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의원은 이 같은 개혁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정보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정보위 개혁이 최우선"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상해 (정보위 개혁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위 개혁이 국정원 개혁보다 저항이 적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신 의원은 정보위의 전임위 전환을 제안했다. 정보위원들의 다른 상임위 겸임을 막자는 이야기다. 또 위원 수를 늘리고 피감기관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재벌사면 축소 기류… 朴 대통령 마지막 숙고

롯데사태 돌발 악재
최태원만 사면 관측

롯데 사태로 인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절 사면명단을 보고받았다. 사면명단은 지난 10일 의결됐지만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늦어지면서 보고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정도 늦어졌다.

일단 이번 특사의 규모는 2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이 될 전망이다. 국가발전와 국민통합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사면은 롯데 사태라는 돌발 악재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 사태 이전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될 것이란 분위기였다. 초반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 이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도 확답을 미루었을 뿐 화답하는 형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롯데 사태는 이런 분위기를 뒤집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물론이고 김승연 회장의 복권까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은 이제 최 회장만이 유일한 특사 대상이라는 관측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면 최 회장은 감옥을 벗어날 뿐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면명단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마지막까지 여론의 기류를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확한 사면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에 대해 "내일 아침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명단이 최종이고 유일한 버전이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소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신동빈의 '지배구조 개선', 지키지 못 할 약속?

日 그룹이 전체 지배하는 구조
"현실적 불가능" 비판 쏟아져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방송에 나와 "롯데는 가족지분이 절대적인 비상장사, 그것도 일본 그룹이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그런 점에서 신 회장이 발표한 것이 과연 실천될 거냐, 또 신 회장 뜻대로 되겠느냐는 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롯데홀딩스라든가 L투자회사의 지분이 대부분 다 가족지분으로 되어있다. 가족지분에 있어서 신 회장이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장남인 형 신동주 씨와 지분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지분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있을 텐데, 신 명예회장 사망 시 상속 과정에서 가족과 부인과 자녀들간에 지분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신 회장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관철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현실성부터가 당장 문제가 된다"며 "그런 조건에서 과연 지주회사까지 개편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것도 말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비리사건이 있을 때도 여러 재벌총수들이 사과하고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결국은 그게 흐지부지되고 또 다른 비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거의 반복되지 않았느냐"며 "어제 발표한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계가 도와주고 가르쳐 주던 나라에서
도움을 나누고 배우러 오는 나라로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0년의 위대한 여정이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SK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
사물인터넷 기기수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학교 정보화 시설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자동차 산업 세계 5위
외환보유 세계 6위
과학 기술 역량 세계 7위
무역규모 세계 8위
대한민국 광복 70년을 축하합니다
OK! SK

‘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폐지 대안으로 제기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해묵은 논쟁이 재현됐다. 무고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지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대안으로 거론된 무기징역을 제외하면 그 이후 6차례는 종신형에 가까운 대안이 뒤따랐다. 하지만 잇단 흉악범죄와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국제사회가 점차 사형제 폐지 추세를 걷고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존폐 논의가 폐지 대안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이 사형폐지 입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일태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2000년)’에서 “사형의 대체형으로 상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고 보지만 사형폐지를 위한 중간단계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논문은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삶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이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적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하는 측은 이 대안이 오히려 더 가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석판사로 사형 선고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는 12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마찬가지로 비인간적인이며 영구 격리는 또 다른 인격권 침해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둔 외국도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의 사형제 폐지 국가들이 뒤늦게 상대적 종신형을 택한 이유다. 애초 독일은 1949년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뒀지만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 중이다.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은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1973년 사형제 부활을 놓고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된 바 있다.

흉악범죄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이듯 대책이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흉악 범죄 발생은 제도적 문제, 사회 빈곤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다”며 하나의 대책으로 일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르웨이의 경우 2002년 무기징역형을 폐지한 뒤 교정 여부에 따라 수감을 추가하는 예방적 구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죽은 모근 살려내는 샴푸?

식약처, 거짓광고 업체 檢 송치

허위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업체 5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했다. 식약처는 업체 대표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시가 약 2억3000만원을 판매 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황종호 드림모 샴푸.

또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 해도 자라나’ 등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구입시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광복 70주년,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 추모 광복절을 3일 앞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한 시민이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관에 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STX 뇌물’ 정옥근 징역 10년… 장남 법정구속

法 “지위 내세워 거액 뇌물 요구… 국가 안보 영향 우려”

법원이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STX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직무 상대방인 방산업체에 지위를 내세우며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한 것은 방산비리 특성상 그 폐해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수십년 동안 위험을 안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 내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정씨에 대해 재판부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화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봤다. 그럼에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미란 기자

'포스코 비리' 단서 잡나

檢,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소환조사

검찰이 배성로(사진)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포스코 비리의 단서를 잡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의 연결고리인 포스코 수뇌부가 구속영장이 두번 연속 기각돼 검찰의 구속수사를 피하면서 배 전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배 전 회장은 개인 비리와 함께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배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산 정리 과정에서 동양종건 등에 부실 자산을 떠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종건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에 있던 2009년부터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10건 안팎의 대규모 해외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포스코건설의 해외 레미콘 공사는 동양종건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배 전 회장의 개인 비리와 함께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관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의 유착관계 정황이 포착되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배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난 5월과 지난달 두차례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만해축전… 전국 고교생 백일장 만해축전추진위원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5 만해축전 전국 고교생 백일장이 12일 인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려 참가 학생들이 '낮잠'과 '거짓말'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800명 규모 가석방 단행

정치인·경제인 제외

법무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별도로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가석방은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가 대상이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얻은 가점, 연령,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규모는 8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과 달리 경제인과 정치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석방 심사 결과와 집행 계획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하는 13일 함께 발표된다. /연미란 기자

대부업체 대출금 갈취한 일당 실형

法 "죄질 무거워"

은행 예금거래 내용을 위조해 대부업체를 속이고 대출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홍모(32)씨에게 징역 1년, 구모(25)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정씨의 경우 사문서위조와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거나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노트북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조회 기간 등이 적힌 입출금거래내용 명세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위조문서를 대부업체에 보낸 후 당사자를 시켜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회사에 다니고 30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속여 A캐피탈 등 2곳에서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정씨는 지난해 1~2월에 총 82회에 걸쳐 입출금거래내용 명세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미란 기자 actor@

클라우드 서비스 악용 가능성 제기

'개인정보 해외유출' 우려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 노현숙씨는 박사학위 논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내놓았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대신 인터넷 서버에 정보를 저장,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 쓰는 서비스다. 구름 속에 데이터를 저장해뒀다 꺼내 쓰는 것 같다고 '클라우드(Cloud)'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논문은 한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업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보를 국내보다는 해외 서버에 보관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정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속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률 적용을 받게 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가령 미국은 '애국법' 등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도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녕 등을 목적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안보 등을 이유로 해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각 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가 간 공유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국외에 있다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워 이런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

노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해외 이동을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씨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국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역외 규정을 적용한다. 노씨는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과 관련한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헌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과태료 "합헌"

헌법재판소가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15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발급 금액은 지난해 7월 건당 10만원으로 개정됐다.

조세범 처벌법은 의무발급 규정을 어겼을 때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이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과태료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다수가 실제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세액에 상응해 과태료가 정해져야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또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는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으로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액의 상한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연미란 기자

中 위안화 평가절하로 증시·환율 '혼란'

한국·글로벌 증시 '약세'
위안화 절하 가능성 '여전'



중국 인민은행이 이틀 연속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요동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중국 인민은행(PBOC)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달러·위안(USD/CNY) 기준환율을 끌어올려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자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위안화 가치를 1.86% 내린데 이어 12일 1.62% 추가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환율이 급등, 국내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공세가 이어졌다.

12일 코스피지수는 11.18포인트(0.56%) 내린 1975.47로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2998억원어치 주식을 내던졌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4억원, 2610억원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절화에 원·달러환율은 전날 대비 11.7원 오른 1190.8원으로 마감했다.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 위안화 절하…업종별 희비 교차

원화 약세는 수출 대형주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특히 그동안 수출 부진에 시름해온 국내 자동차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다. 반면 중국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소비 효과를 누려온 화장품·여행·항공주는 약세를 보이며 명암이 갈렸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전일대비 5.04%, 5.36% 상승했다. 현대모비스(2.42%), 현대글로비스(4.58%), 쌍용차(1.26%) 등도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0.26%), 아모레퍼시픽(-6.23%), 제일모직(-3.32%), 아모레G(-2.05%), LG생활건강(-3.26%)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운수장비(2.96%)를 비롯한 보험(0.78%), 통신업(0.33%), 은행(0.17%) 만이 올랐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날 대비 2.06% 내린 717.20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39포인트(5.4%)나 폭락하며 700선 아래로 주저앉기도 했다. 기관이 1010억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71억원, 35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 글로벌 증시 일제히 '요동'

중국의 연이은 위안화 절하에 글로벌 증시도 주저앉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27% 하락했다. 다우존스와 S&P500지수도 각각 1.21%, 0.96% 떨어졌다.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애플을 포함해 명품 브랜드와 자동차 업종이 약세였다.

아시아 시장 역시 이틀 연속 하락했다.

12일 일본 닛케이지수는 1.58% 내렸고, 홍콩의 항셍지수와 H지수는 오후 4시58분 현재 각각 2.62%, 2.49% 하락 중이다. 호주의 S&P/ASX200 지수는 1.64%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상하이종합지수는 1.06% 떨어졌다.

위안화 가치절하는 그만큼 중국이 사들이는 원자재도 줄어들 가능성을 예고한다. 이에 국제유가도 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6년 만에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1.88 달러(4.18%) 하락한 43.08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금 가격은 온스 당 3.60 달러 오른 1107.70 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추가 절하를 예상하며 금융시장 타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위안화는 여전히 상대통화 대비 고평가 돼있기 때문에 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주식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선 주가손실과 환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져 매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 상품수입 가격 상승은 가뜩이나 부진한 원자재 수요를 추가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라며 "가격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실적 전망 또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2분기 적자·위안화 절하… 악재 겹쳐

아시아나항공株

주가 10% 내림세로
목표주가 하향조정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2분기 어닝쇼크와 중국 위안화 약세에 급락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590원(9.22%) 내린 5810원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2617억원어치 처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전날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61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3336억원, 당기순손실은 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분기만 해도 저유가에 따른 연료비 절감과 엔약세 등으로 77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분기 적자 전환 요인은 다름 아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다. 메르스가 발생하고 5월 31일부터 7월13일까지 40여일간 국제선 10만2000명, 국내선 1만6000명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여행객이 크게 줄어든 것.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전체 실적은 매출액 2조7415억원, 영업이익 156억원, 당기순손실은 258억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실적악화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이 커졌다. 위안화 약세로 중국인이 해외 소비를 줄이고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LCC(저가비용항공사)와는 달리 7, 8월 여전히 중국, 동남아 인바운드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며 "6, 7월에 취소된 잠재 수요가 8월 중순에서 9월 추석 시즌에 몰릴 가능성은 있지만 7월과 8월 중순까지의 수요가 전년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기대치보다는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종전 9000원에서 7500원으로 내렸다.

/김보배 기자

CJ E&M, 2분기 깜짝실적에 날개달고 '훨훨'

| 마켓인사이트 |

만족스러운 2분기 실적
하반기도 호조 예상돼



/CJ E&M 홈페이지 캡쳐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M'이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소식에 날개를 달고 비상 중이다.

CJ E&M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흑자 전환한 178억2400만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4.3% 늘어난 2991억9500만원,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한 125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컨텐츠 경쟁력 강화로 인해 방송부문 매출이 호조를 보였고, 음악·공연 부문의 부실이 제거되면서 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다.

이 같은 호실적 소식에 주가도 날아올랐다.

12일 코스닥시장에서 CJ E&M의 주가는 전일대비 4.29% 오른 8만5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8만8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가는 지난 6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냈다"면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방송, 음악·공연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넷마블 게임즈의 선전으로 영업외 부문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원은 "사업 전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본격적인 수익창출 증대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J E&M의 실적 개선세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민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집밥 백선생' '오 나의 귀신님' 등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방송 광고 매출이 시장 성장을 웃돌 것"이라며 "올 3분기에도 실적 호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CJ E&M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한 3304억원, 영업이익은 56억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영화 '베테랑'이 개봉 6일차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8월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하야)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며 향후 현지 제작사와의 파트너십 확대가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에서 흥행이 입증된 예능이나 드라마를 공동 제작한다면 추가적인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중국 사업자와의 합작사(JV)설립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minji@

금융권, 청년창업가 미래 키운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해 발굴·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지난해 5월 설립된 '지오라인(Geo Line)'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업체다. 이 회사는 특허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 왔지만 사용전력에 대한 과금과 결제 등 금융부문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노하우 부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때 한줄기 빛이 되어 준 곳은 바로 KB금융그룹의 스타터스 밸리다. 사무실부터 사업 홍보와 결제 관련 멘토링까지 가능성 하나만 믿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다.



조성규 지오라인 대표(왼쪽)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연을 하고 있다. /KB금융 제공



김수재 산은 부행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가 스타트업 카페 개장을 축하하고 있다. /산업은행 제공

금융권이 청년 창업가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

기존의 금융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정착하기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형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멘토 역할부터 사무실 대여, 직·간접 투자까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멘토역할부터 직·간접 투자까지

KB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집중육성 프로젝트인 'KB 스타터스 밸리(Starters Valley)'를 내놨다.

이곳에서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해 입주공간과 투자연계, 멘토링, 제휴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KB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매칭투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매칭투자 프로그램은 초기자금이 필요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유망 업체를 발굴, 오픈트레이드의 크라우드펀딩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다.

참여 스타트업들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단순 자금 유치 효과 외에 체계적 사업 홍보효과와 집단지성을 통한 사업성 검증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KB금융은 기대했다.

우리은행은 내달 10일까지 복합사무공간 '우리핀테크나눔터'에 입주할 1인 창업자를 모집한다.

핀테크 분야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나눔터는 사무실과 세미나룸, 회의실, 미팅룸을 갖추고 있다.

최종 선정된 1인 창업자는 10월 1일부터 사무공간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창조경제 정책 발맞춰

하나금융그룹도 창조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달 27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의 인재와 우수 벤처기업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벤처기업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초기창업자를 선별해 집중육성하는 곳도 있다.

KDB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글로벌 지향형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데모데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를 선별해 3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집중 보육하는 기관으로 교육과 멘토링을 포함해 창업을 지원한다.

그간 산은은 초기창업자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해외투자자 등이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벤처기업육성 행사를 지속 개최해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탐앤탐스와 손을 잡고 청년 기업가를 위한 'KDB 스타트업 카페'(오른쪽)도 개장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탐앤탐스 매장에 20여평 규모로 문을 연 스타트업 카페는 15곳의 예비 스타트업팀에 창업 준비 공간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中企근로자가족 장학금 전달식 IBK기업은행은 12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 4억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이뤄졌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240명에게 제공됐다. /기업은행 제공

삼성카드, 개인사업자 지원 특화카드 선봬

'BIZ 4 V2' 출시

삼성카드가 개인사업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새상품을 내놓았다.

12일 삼성카드는 중소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성카드 BIZ 4 V2'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비즈니스 특화카드인 'BIZ 숫자카드'의 두번째 업그레이드 상품으로 매달 발생하는 공과금과 사업상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카드 4 V2의 부가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고객은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코스트코 ▲손해보험료 등 5대 업종에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금 운영과 회전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반영해 각종 결제 편의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약 전월 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의 입금을 기존보다 1~2일 단축하는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단축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세무나 결제지원 편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예컨대 세무신고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 내역 중 부가세 환급대상이 세무회계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돼 별도로 증빙을 모아두지 않더라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매월 25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객은 전월 이용금액이나 할인한도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기본 0.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아란 기자

7월 가계대출 600조 돌파

저금리·주택거래 호조 영향

국내은행들이 지난 7월 중 가계에 빌려준 돈이 60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7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6조5000억원 늘어난 446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100가구로 지난 2006~2014년 7월의 평균 거래량인 4600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의 기타대출은 155조1000억원으로 6월말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7월 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4조7000억원 확대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은 일부 기업들의 자체상환 등으로 3000억원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와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차입 수요 등으로 5조원 증가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월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22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2005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로 대출 잔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수신잔액은 1324조3000억원으로 7월 중 6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공공 및 법인 자금 유입의 영향으로 정기예금은 1조9000억원 증가했다"면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자금 인출로 6조1000억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같은기간 자산운용사 수신은 13조9000억원 오른 429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MMF) 수신은 금융권의 일시적인 단기자금 유입으로 9조9000억원 확대됐고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는 각각 1조3000억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M2 증가율은 전월(9.0%)보다 소폭 상승한 9%대 초반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늘어나고 재정지출 등으로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 직권해제 급물살

도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자체장 추진여부 일임

지방자체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해제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도도 이들 지역의 매몰비용을 보조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사업장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권 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공포 후 바로 가능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자체 정비구역 직권해제 허용 및 매몰비용 지원 ▲정비구역 자동해제 일몰제 확대 적용 ▲공공관리제 규제 완화 ▲정비사업시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도 확대된다. 지난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구역 중 추진위가 설립된 곳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4년 이내 조합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일몰제) 된다.

다만 주민 30%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4+2)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사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들 사업장의 경우 직권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매몰비용이었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사용비용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강북구 수유1-1등 재건축 21곳과 강북구 미아16등 재개발 7곳 등 총 28곳의 직권해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매몰비용은 총 75억원에 달한다.

앞서 경기도도 이들 사업장의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외에 조합까지 확대하는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기준 개정에 따라 해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결정하고 인정비용의 70% 범위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도지사는 도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인정비용의 35%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 외 시·군은 20%다.

다만 시장·군수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합 등에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로 제한했다.

수도권 한 재개발 사업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해제가 용이해졌다"며 "해당 지역의 사업 해제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도정법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가결 처리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5베이가 적용된 '힐스테이트 평택' 84㎡C 평면도. /현대건설 제공

중소형 최초 '5베이' 특화설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
64~101㎡ 2807가구 규모
공간활용도 극대화 초점

현대건설은 이달중 평택시 세교지구에 '힐스테이트 평택'을 분양한다. 중소형 아파트 중 최초로 5베이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활용했다.

내부공간설계의 경우 전용면적 64㎡는 침실3개, 욕실2개로 구성됐다. 신혼부부의 생활편의에 맞춰 안방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갖추고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된다.

전용면적 73㎡는 기본 침실 3개에 별도공간인 알파룸이 제공된다. 73㎡A형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주부 동선을 고려한 'ㄷ'자형 주방을 설계했다. 73㎡B형은 복도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워크인 창고를 배치했다.

84㎡C형은 전면 5베이로 설계됐다. 채광과 통풍 효과가 높으며 침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이 4개다. 확장 시 다용도실에는 입식 세탁장과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볼이 설치된다.

입주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평면변형도 가능하다. 73㎡A형은 주방 부분의 수납·식당 공간을 넓힌 '가족공간강화형'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73㎡B형은 자녀방 두 곳에 별도의 학습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두자녀 학습공간강화형' 평면을 고를 수 있다.

84㎡A형은 2개의 침실을 통합해 학습공간을 강화한 넓은 자녀 침실과 별도의 복도 워크인 창고를 두는 '학습과 수납공간강화형' 평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각 방에는 온도제어시스템이 설치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미관향상과 설치비 절약을 위해 매립형 냉매배관이 설치된다.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와 스마트 주방TV가 설치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편리하도록 다방면에서 고심했다"며 "상품적인 부분과 2800여가구의 대단지라는 점, 뛰어난 입지여건 등이 입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3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64~101㎡ 2807가구로 구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64 ~ 84㎡ 822가구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김형석 기자

레고랜드 인근·개발호재 풍부… 배후수요 탄탄

믿음종합건설 '춘천 레고타워'
498실 규모 수익형 오피스텔
경춘 교통망 중심지에 위치

믿음종합건설은 이달 중 춘천레고랜드 인근에서 수익형 오피스텔 '춘천 레코타워'를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춘천시 근화동 26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20~64㎡ 총 498실 규모다.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는 영국 윈저보다 두배 이상 큰 129만1434㎡로 오는 2018년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비롯해 호텔과 워터파크,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이곳은 약사재정비촉진지구,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등 탁월한 개발호재지역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경춘선 복선전철 등 춘천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춘천의 대표 상업지역인 명동과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워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공지천과 북한강, 중도유원지 등이 인접해있다.


춘천 레고타워 광역조감도. /에스엘씨엔디 제공

내부는 총 9가지 맞춤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20층 초고층으로 시공돼 시원한 전망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한다.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했고 팬트리장 제공 등을 통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홍보관은 강원 춘천시 근화동 267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대우건설, 말레이 톱3 빌딩 준공

지하4~지상 58층 규모
274m… 세번째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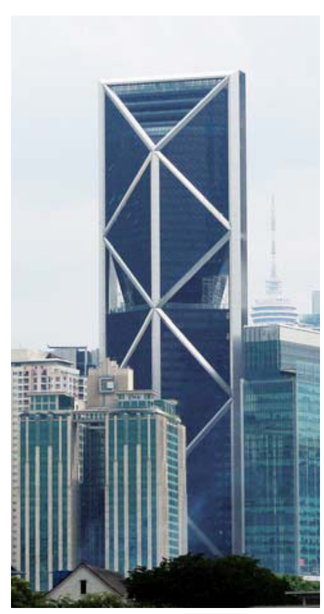
대우건설은 지난달 31일 말레이시아에서 세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인 IB타워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중심가인 빈자이지구에 위치한 IB타워는 지하 4층~지상 58층 규모로 높이 274m의 초고층 빌딩이다.

대우건설은 이 빌딩에 자체적으로 보유 중인 초고층 빌딩 시공 기술들을 적용했다. 설계부터 시공, 준공이후 유지보수에 이르는 기간의 구조물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BMC(Building Movement Control)' 기술을 활용했다.

건축물의 시공단계를 미리 예측해 3D로 구현해 공사 진행 중 방해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3D 시뮬레이션 기술'도 적용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IB타워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대우건설의 초고층 빌딩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음이 증명됐다"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초고층 빌딩 시공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말레이시아 IB타워. /대우건설 제공

엔저도 힘든데… 국내수출 '중국발 쇼크'

'위안화 절하' 국내경제 영향

중국기업 가격경쟁력 확보
전자·조선업계 '실적' 걱정

중국의 잇따른 위안화 절하가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특히 정보기술(IT) 업계가 이번 위안화 절하에 가장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전날 위안화 가치를 1.86% 인하한 데 이어 이날도 추가로 1.62% 내렸다.

한국 수출의 한축을 맡고 있는 휴대전화 제조사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더 힘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한국 스마트폰은 중국시장에서 애플과 중국업체 사이에 끼어 고전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고 있는 중국 업체의 공세에 시달리는 TV와 액정표시장치(LCD) 사업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반도체 등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업종은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위안화 절하로)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완제품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는)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다변화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아직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적자폭이 커지면서 감원을 계획 중인 조선업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업계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위주의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 보다 중국과 사업 영역이 겹치는 중소 조선사의 매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국은 벌크선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시장인 컨테이너선, 가스선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주물량에 갑작스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위안화 약세 장기화에 따른 시장변화는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 중국 경기가 활성화 되면 판매가 늘 것이란 기대와 함께 완성차 수출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기아차 중국 전체 판매 물량(181만대) 중 완성차 수출 대수는 4만9000여대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자동차 부품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한진 기자 hjc@·정용기 기자 yonggi@

소문 많이 난 잔치… '김빠진' 갤노트5

디자인·스펙·예상價 유출
일체형 베터리에 시장 싸늘



갤럭시노트5 박스 유출 이미지.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일부 스펙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3일 미국 뉴욕 갤럭시 언팩 2015 행사에서 하반기 신제품인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갤럭시노트5의 제품 디자인은 물론 스펙까지 유출됐다. 심지어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는 제품 사양은 물론 가격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유출된 상태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의 유출된 내용 중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네덜란드 삼성전자 전문매체 샘모바일은 태국에서 갤럭시노트5 박스 사진이 유출됐다며 사진 속 스펙을 공개했다. 갤럭시노트5의 스펙을 살펴보면 5.7인치 QHD(2560×1440) 화면에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 4GB 램, 무선충전 등을 지원한다. 또 S펜을 눌러 꺼낼 수 있도록 했으며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박스를 통해 배터리 용량과 마이크로SD카드 슬롯 장착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유출된 사진을 보면 일체형 배터리 도입과 마이크로SD카드 슬롯 제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는 갤럭시S6 엣지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는 5.7인치 크기에 2560×1440 해상도를 지원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141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폰 카페'에는 "노트3 이후 노트5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일체형 소식에 노트4로 교체했다", "일체형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갤럭시노트의 경우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데 일체형이면 구매할 마음 안생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는 "갤럭시S6의 판매 부진은 물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다"면서도 "단 삼성전자가 루머로 언급된 내용 이외에 혁신적인 기술을 공개한다면 이같은 흐름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12일 서울 종각에서 SK텔레콤 홍보 모델들이 '내 맘대로 T멤버십' 서비스 이용자 50만 돌파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 50만명 "제휴처 할인율 내맘대로"

서비스 100일만에 50만명 돌파

SK텔레콤은 주요 제휴처의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이용자 선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내 맘대로 T멤버십'이 출시 100여일 만에 이용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내 맘대로 T멤버십은 할인율 총합 71% 내에서 뚜레주르, 빕스, 피자헛, CU, 11번가의 각 할인율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5% 단위로 설정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가능한 고객은 T멤버십 VIP·골드 등급인 SK텔레콤 가입자다.

SK텔레콤이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두 달간 제휴사 할인율을 조정한 고객의 멤버십 이용을 분석한 결과, 멤버십 이용 횟수와 할인 혜택 금액이 할인율 조정 전보다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제휴처에서 멤버십 혜택을 활용한 횟수는 이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할인 받은 금액도 약 45% 증가했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2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고객의 연령별 비중은 30대가 45.5%로 가장 높고 40대(23.2%), 20대(20.4%)가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주요 이용층이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20~40대가 멤버십 서비스도 꼼꼼하게 따져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용 고객은 일반 T멤버십 이용 고객 대비 멤버십 할인 혜택을 3배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할인 혜택 금액도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전자 "올레드 TV로 문화유산 감상"

경복궁 야간개장 기간 전시

LG전자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촬영한 응모작들 가운데 18개 작품을 선정해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복궁에서 올레드 TV로 전시하는 대한민국 문화유산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LG전자는 문화재청, 캐논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LG전자는 경복궁 야간특별관람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가 한여름 밤의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이 총 3000여 점의 작품을 응모했다. 민족의 얼을 가장 생동감 있게 담아낸 작품을 선정한 결과, 경북 영주의 신라시대 사찰 '부석사'가 1위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올레드 TV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 유적지인 경복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마치 현장에서 감상하듯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생생한 감동을 전달하게 된다.


LG전자 모델이 경복궁에서 올레드 TV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대한민국 문화유산 전시회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허재철 LG전자 한국HE마케팅FD담당 상무는 "차원이 다른 올레드 TV로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의 감동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LG

DMZ 지뢰 부상 장병들
위로금 5억씩 전달키로

LG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은 우리 군 장병 2명에게 각각 5억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로금 전달은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LG 임직원들이 최전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다 중상을 입은 젊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보여준 투철한 사명감과 깊은 전우애를 기리기 위해 이뤄진다. /임은정 기자



쏘나타 2016년형

급발진 사고 60%는 '현대·기아차'

최근 5년7개월 간 현대차 43% 1위 기아차 16% 2위

최근 5년 7개월 동안 발생한 급발진 사고 10건 중 6건은 현대·기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43%로 1위, 기아자동차는 16%로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82건의 자동차 급발진·급가속 추정 사고가 신고됐다.

이 중 현대차 모델은 210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쏘나타는 72건, 그랜저는 46건이다.

기아차는 78건(16.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르노삼성자동차(71건, 14.7%) △한국지엠(35건, 7.3%) △쌍용자동차(30건, 6.2%)가 뒤를 이었다.

수입차는 BMW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요타는 13건, 메르세데스-벤츠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혼다 8건, 포드 3건으로 조사됐다.

크라이슬러와 아우디는 각 2건이었다.

푸조와 닛산, 폭스바겐과 엠베이코퍼레이션은 각 1건이었다. /이정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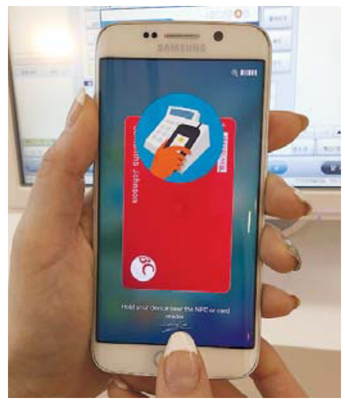
직원도 모르는 '삼성페이'

매장 내서도 결제방법 제대로 숙지 못해 테스트 참여자 " 아직은 카드결제가 낫다"

정식 서비스를 앞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베타테스트(공식 제품을 출시하기 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체험자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페이의 낮은 인지도 탓에 실제 사용 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삼성페이는 카드를 선택하고 지문이나 개인식별번호(PIN)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삼성페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완료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페이는 삼성카드와 BC카드 등 두 카드사를 통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페이가 정식 출시 전이지만 베타 테스트가 진행된 지 한 달가까이 되도록 매장 내 직원들이 삼성페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결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카드와 BC카드 등 두 카드를 사용해 삼성페이 베타 테스트에 참여중인 박 모씨는 "편리하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자주 쓰고는 싶지만 삼성페이로 결제를 요청하면 10번에 8번 정도는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한다"며 "자주 가는 매장의 직원이 삼성페이에 알고 있는 곳이 아니면 아직 잘 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NFC나 티머니 결제로 오인해 NFC 단말기에 올려놓으라고 안내를 받는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를 통해 삼성페이 베타 테스트에 참여 중인 이 모씨는 "카드 결제를 위해 휴대폰을 건네면 직원이 깜짝 놀라고 이런 서비스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가까운 곳에 카드 리더기가 있으면 직접 리더기에 접촉 시키면 되지만, 멀리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야하고 삼성페이 활성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지문 인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페이가 아니라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서로 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는 "삼성페이가 많이 홍보가 돼 설명을 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다"면서도 이후 삼성페이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는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SK플래닛 '시럽페이', 네이버 '네이버페이', LG유플러스 '페이나우', 신세계 'SSG페이', NHN엔터테인먼트 '페이코' 등이 출시돼 경쟁 중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삼성전자 '힘내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 '보상 판매' 7대 프리미엄 제품 대상

삼성전자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힘내라, 대한민국' 감사 대축제를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보상 판매' 대상을 기존 3개에서 7대 프리미엄 제품으로 확대하고△70개 인기모델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스페셜 에디션 판매전'과 함께 △7주간 매주 70명을 뽑아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신혼 부부에게는 확대된 혼수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SUHD TV 간송 문화전'을 열어 광복의 의미를 기린다.

지난달 TV, 에어컨, 노트북 구형 제품을 반납하면 신제품 구매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는 행사 대상을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청소기를 포함해 총 7대 프리미엄 제품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인기 제품 70개 모델을 선정해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스페셜 에디션 판매전'도 실시한다.

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경품 행사도 준비했다.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주간 매주 70명에게 제일모직 패션상품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신라스테이 상품권 등 20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신혼부부들에게는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주는 혼수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 /조한진 기자 hic@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디지털프라자 홍대점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힘내라 대한민국' 감사 대축제 해당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12일 김포 효원문화센터에서 기아차 초록여행 하모니원정대 3기 참가자들이 하트표시를 하고 있다.

기아차, 대학생과 장애인 여행 편의시설 점검

'초록여행 하모니 원정대' 사업 시작

기아자동차가 대학생과 함께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나섰다.

기아차는 12일 김포 효원문화센터에서 초록여행 하모니원정대 3기 발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기아차 김승진 전무, 사단법인그린라이트 김선규 회장 및 참가 대학생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초록여행 하모니원정대는 장애인 대학생 2명, 일반인 대학생 3명이 팀을 이뤄 6박 7일간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을 타고 대한민국 여행지를 방문하며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이다.

4월 모집을 시작한 초록여행 하모니원정대 3기에는 총 29팀이 지원했다.

기아차는 여행 의도와 계획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해보다 2팀이 늘어난 10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10개 팀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권역에서 각각 국내 문화재 탐방 여행, 여행지 장애인 편의 시설 점검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실시한다.

기아차는 참가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인증서를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를 뽑아 정부 부처 및 후원 기관 대표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 사전IPO 1차로 5500억 조달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DIBH)는 12일 상장전 투자유치(Pre IPO) 결과 1차로 5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날 한화자산운용 등 20여개 기관투자자와 이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주주간 계약 체결은 13일부터 진행된다.

DIBH는 초기 투자자에게 8월말까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겠다고 한 데 따라 우선 1차로 발행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 승인 절차로 인해 이번 1차 발행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를 포함하면 총 발행 규모는 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DIBH는 예상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을 대부분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OFFICIAL SELECTION
FESTIVAL DE CANNES
제 68회 칸영화제 특별상
★★★★★
삶의 여정을
우아하게 탐구하는
걸작!
- CANNES
감동적이고 섬세한,
괴물 같은 작품!
- THE PLAYLIST
절묘한 유머와
드라마의 조합!
- HOLLYWOODREPORTER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할
어느 날
나의 어머니
mia madre
〈아들의 방〉 난니 모레티 감독 작품
8월 20일,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세이상관람가 수입·배급 (주)티캐스트 tcast cinecube

불편한 벤츠 '내비게이션' 불만 속출

업데이트 센터방문 필요
보증기간 후엔 비용 발생



메르세데스-벤츠 The 뉴 C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사장 드미트리스 실라키스)의 내비게이션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보배드림에 따르면 벤츠 소유주 신 모씨는 벤츠차량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하려면 CD가 필요한데 이 CD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신씨는 "매달 서비스 센터에 방문할 수도 없다"며 "사재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벤츠 차량을 구매하기 전 내비게이션에 대한 고민을 게시판을 통해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3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벤츠 내비게이션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따로 내비게이션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는 6월 순정 내비 NTG 4.5·NTG5 Star2 업데이트 맵을 출시했다.

당시 급커브·사고 다발 지역이 포함된 안전 운전 데이터 860여개 업그레이드, 신규 안전운전 정보 820여개 추가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벤츠를 비롯한 수입차 대리점 딜러는 사제 또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벤츠 순정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가 불편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국내 도로사정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벤츠 대리점 한 딜러는 "국산 내비게이션의 경우 SD카드로 쉽게 무료로 업데이트 할 수 있지만 해외 공장에서 장착돼 수입해 온 내비게이션은 CD를 이용해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비용 또한 발생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높은 수요에 알맞은 옵션이나 편의 사양들을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춰 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기업 내비게이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국내 소비자들은 독일차 순정 내비게이션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벤츠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인도·필리핀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한화큐셀, 10월 중 착수


한화큐셀이 건설한 영국 케임브리지 스토브리지 24.3MW 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 제공

한화큐셀은 인도 중부의 안드라 프라데시주에서 5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화큐셀은 인도 태양광 기업 아쥬르파워와 현지에 합작법인을 세운다.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기는 약 8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인도의 1만8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한화큐셀은 10월 중 공사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발전소 건설을 완료해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화큐셀은 벨기에 신재생에너지 기업 인피니티와 필리핀 민다나오섬 남부에 위치한 디고스 시티에 총 28.6MW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공사의 EP(설계, 조달)를 수행하게 된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매년 약 40GWh의 전력을 생산해 필리핀 현지에 공급한다.

이는 약 9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필리핀 디고스 28.6MW 태양광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2016년 1분기에 발전소 건설을 완료해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4회 렉서스 디자인 어워드' 작품 모집

렉서스 브랜드는 전세계 청년 디자이너의 등용문인 4회 렉서스 디자인 어워드의 개최를 알리고 본격적인 글로벌 작품 모집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렉서스 디자인 어워드는 렉서스가 개인, 그룹, 국적을 불문한 전세계 청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펼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2012년 10월 창설됐다.

4회 대회의 테마는 '예측·기대(Anticipation)'다.

1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4회 렉서스 디자인 어워드의 결과는 2016년 초에 발표된다.

수상자들은 2016 밀라노 위크를 통해 소개돼 작품을 알릴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정필 기자

한화, 복지관에 말복맞이 삼계탕 나눔

㈜한화는 말복을 맞아 12일 서울 신당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양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화 임직원 10여명이 복지관을 방문해 65인분의 삼계탕 점심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배식을 도왔다. 복지관을 찾지 못한 독거 어르신용 도시락과 밑반찬은 따로 포장했다.

/이정필 기자

포드 익스플로러, 잇단 문제점에 몸살앓이

조립 불량에 견인력 약해
인기 많지만 불만도 많아




익스플로러 엔진룸 하부커버가 떨어져 벌어지고 나사가 빠져 있다. /출처=보배드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포드코리아(사장 정재희)의 간판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익스플로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갖가지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조립 불량과 약한 견인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포드 익스플로러는 올해 1~7월 누적 2200대가 팔려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10위에 올랐다.

이에 힘입어 1~7월 포드코리아 판매량은 6533대로 전년 동기(5204대) 대비 25.5% 증가했다.

이 기간 포드코리아 점유율도 4.63%에서 4.65%로 소폭 상승했다.

이같은 인기에 맞물려 국내 익스플로러 오너들의 불만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익스플로러 2.0 모델을 구매한 A씨는 첫 장거리 주행에서 차량 이상을 발견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고 바퀴에 이물질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난 것이다.

차를 세우고 보니 엔진룸 하부커버가 탈락돼 벌어지면서 바닥에 긁히고 있었다.

A씨는 포드코리아 서초서비스센터를 찾아 진단해 보니 나사가 많이 빠졌고 범퍼 하단 일부는 찢어져 있었다.

포드 측은 일부 찢긴 부품을 교체했지만 도로에 긁힌 커버는 보증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항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나사 조립도 안한 포드코리아의 보증부품 기준과 수리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 신차 출고 검사 기준과 안전 기준은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SUV 특성에 걸맞지 않은 익스플로러의 약한 힘은 인증 동영상이 퍼지면서 오너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2015년 6월식 익스플로러 3.5 모델을 구입한 B씨는 최고의 견인력(2200kg)을 자랑한다는 포드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차량을 선택했다.

하지만 작은 보트를 달고 경사가 완만한 언덕길을 오르자 힘이 달려 멈춰 섰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테스트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다.

그러자 사측(공식딜러사 선인자동차)은 국내시판용 익스플로러는 견인력이 0.9톤이라고 답변했다.

B씨는 "동일한 보트를 달고 같은 경사지를 구형 갤로퍼 이노베이션이나 액티언 스포츠도 잘만 올라간다"며 "익스플로러 3.5가 견인력이 0.9톤이란 건 리어카나 끌란 얘기다. 캠핑카나 보트 끌기를 원하면 포드 익스플로러는 제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보트 무게나 언덕의 경사도를 알 수 없다"며 "B씨가 수차례 컴플레인을 제기해 선인자동차 측에서 B씨를 만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익스플로러의 견인력은 2200kg이 맞다"며 "후크만 걸었을 때 견인력은 0.9톤이다. 스페셜 토인 패키지를 별도 구매해 장착했을 때 견인력이 2200kg"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中 위안화 절하에 분주해진 식품업계

현지 생산·결제통화 달러 사용으로 큰 충격은 없을 듯
원·달러 환율 상승 지속 시 원재료 구매·수출은 부담

국내 식품업체들이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에 수출이 많은 농심, 오리온, 롯데제과 등은 현지서 원료를 조달해 생산하고 있다. 중국과 교역이 많은 CJ제일제당 등도 대부분 결제통화로 달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위안화 값을 떨어뜨리면서 중국과 교역을 늘리고 있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론상으로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위안화 절하로 물품 단가가 낮아져 손익상 호재로 작용한다.

반면 수출의 경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제품 가격이 기존 보다 높아져 중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값으로 구매해야한다는 점에서 판매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해석이란 게 업계의 얘기다.

중국에 수출이 많은 식품 업체들은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이번 위원화 절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과 교역이 많은 식품업체들 역시 결제통화로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하가 수출이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안화 절하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농심 관계자는 "주요 라면 제품은 중국내 공장서 현지 원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일부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 수익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중국에서 원당, 원맥, 대두, 옥수수 등 곡물 수입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결제통화를 달러로 하고 있어 당장 실질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위안화 절하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원재료 구매 등에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을 늘리고 있는 KGC인삼공사 역시 "결제를 달러로 하고 있어 당장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삼 제품 가격이 일반 소비재 제품보다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 위안화 절하로 국내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까지 국내 농산물의 중국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며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aT 중국무역부 관계자는 "위안화 절하로 한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계속해 상승할 경우 분유나 유자차 등 소비재 외에 설탕과 채소 등과 같은 원료성 상품은 다른 상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메르스 이어 위안화 쇼크… K뷰티 '촉각'

中 관광객 방한 감소 우려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메르스 여파로 인한 소비 급감이 회복되기도 전에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더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요 화장품업체들의 밀집지인 명동 상권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추가 절하 또는 장기화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 관계자는 "명동 매장은 메르스 여파로 줄어든 관광객 매출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타격이 있으면 명동 매장이나 면세점 쪽은 기존에 하던 외국인 대상 프로모션을 좀 더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동에는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네이처리퍼블릭·토니모리·미샤 등의 브랜드숍이 몰려 있다.

중견 화장품 업체 엔프라니가 운영 중인 홀리카 홀리카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프로모션 대상을 국내 소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안화 절하 소식에 하반기에 '할인' '1+1' 등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위안화 절하로 입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브랜드 파워나 품질면에서는 중국 브랜드 보다 한국 화장품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계속 한국 상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날 보다 1.62% 하락한 6.3306위안으로 고시했다. 전날 1.86% 떨어진 6.2298위안이라고 고시한 지 하루만에 또 절하한 것이다.

한편 이날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에 화장품주가 대부분이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대비 6.23% 떨어진 37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LG생활건강(-3.26%), 에이블씨엔씨(-8.87%), 토니모리(-6.45%), 코리아나(-5.63) 등의 주가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신동빈의 전략적 인사?

신격호 비서실장 김성희 사임
신동빈 보좌하던 이일민 임명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0)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온 비서실장이 최근 바뀌었다. 12일 롯데그룹 내부 통신망(인트라넷) '모인'(MOIN)에 따른 것으로 기존 신 총괄회장을 보필해오던 김성희(72) 전무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유를 표명했다.

김 전무의 후임으로는 이일민(56) 전무가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무는 지난 24년간 신 총괄회장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해온 인물이다. 1971년 롯데제과 연구원으로 롯데에 입사한 김 전무는 1982년부터 1990년 까지 일본 도쿄 주재원으로 근무했었다. 1992년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전신인 기획조정실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최근까지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았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김 전무를 항상 옆에 두었으며 갑작스런 현장 방문을 할 때도 김 전무를 대동했었다.

새로 임명된 이일민 전무는 롯데백화점 해외사업부문장을 거쳐 2008년부터 정책본부 비서실에서 일해왔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보좌하다 올해들어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사람인 이 전무가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에 임명되며 신 회장이 아버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인 인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롯데그룹 비서실은 '신동빈의 두뇌'로 불리는 정책본부 소속으로 현재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황각규 운영실장(사장)이 있는 운영실에 실세 자리를 내준 상태다.

/김성현 기자 minus@

짝퉁명품 밀수, 까르띠에 1위… 260억 상당 적발

관세청 불법 밀수출입 단속

상반기 관세청 단속으로 적발된 '짝퉁 명품' 가운데 고가 시계 브랜드인 까르띠에가 밀수입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12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밀수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위조품 가운데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브랜드는 까르띠에였다. 1~6월 260억원어치가 적발됐다. 까르띠에에 이은 적발액 2위 브랜드는 샤넬(147억원)이었고 루이뷔통(48억원), 롤렉스(45억원)가 뒤따랐다.



까르띠에 적발액 순위는 2010년 9위에서 2011년 6위, 2012년 5위, 2013~2014년 4위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박상길 기자



태극기 사랑 이벤트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124개 문화센터에서 태극기를 주제로 다양한 '태극기 사랑 강좌'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태극기 모양의 요리를 만들며 태극기를 익힐 수 있는 '태극기 요리' 강좌가 마련됐다. 또한 광복의 의미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놀이터' 강좌도 개설된다. /홈플러스 제공



광복70주년 기념 통합행사 농협하나로유통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815개 품목을 최대 70% 할인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한다. /연합뉴스

백화점, 광복 70年 '애국마케팅' 후끈

백화점업계가 15일 광복절 70주년을 앞두고 애국 마케팅이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은 12일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에 2019년까지 5년 동안 10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6일부터 전국 49개 지점(영플라자 2곳 제외) 외벽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광복절, 3·1절에 태어난 대학생 9명에게 14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한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4개 점포 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고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4개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광복 70주년! 파워 코리아' 행사를 연다.

14일에는 1만명의 고객에게 현대백화점이 자체 제작한 스티커형 태극기를 증정하고 16일까지 현대백화점 페이스북에 올린 태극기 사진 수 만큼(1건당 1000원)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서는 15일 오후 8시15분부터 광복절을 테마로 '선상 불꽃 축제'를 진행한다.

한화갤러리아는 갤러리아명품관 웨스트 외관 미디어 파사드 4330개 유리디스크 LED를 통해 '휘날리는 태극기 영상'을 영상으로 송출하고 명품관을 비롯한 각 지점별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AK플라자는 15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특설무대에서 아티스트 헤더 한센과 함께 '광복 70주년 기념 퍼포먼스'를 펼친다. /박상길 기자 sweatsk@

CJ, 베트남에 깨끗한 물 공급 지원

코이카·케이워터와 협력

CJ그룹(회장 이재현)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베트남 닌투언성(省) 지역에서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케이-워터(K-water)와 함께 각 가정에 수돗물 공급을 추진한다.

CJ그룹과 코이카는 지난 10일 오전 베트남 닌투언성 땀응2마을에서 CJ그룹 민희경 CSV(공유가치창출)경영실장, 코이카 신의철 글로벌파트너십본부장, 케이-워터 황만하 해외사업본부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관 연결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은미 기자

바둑마케팅으로 中 대륙 공략

한국인삼공사, 바둑교류전

KGC인삼공사(대표 김준기)는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관장 한·중 바둑교류전'을 개최한다.

중국 상하이 그랜드센트럴 호텔 특별대국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 바둑리그의 정관장팀과 중국 바둑리그의 중국상하이팀이 5대5 맞대결을 펼쳐 승부를 가리게 된다.

인삼공사는 이번 바둑교류전을 통해 중국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헬로apM 관리용역 '갑질'

前관리용역업체, 상가 무단 점유·점주들에 횡포부려
상인들에 뒷돈 요구 등… 비협조시 내쫓겠다 협박도

동대문 패션쇼핑몰인 헬로apM 전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대표 김방진)가 최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무단 점유하면서 점포주와 입점 상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이권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헬로apM 관리단에 따르면 전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상가 무단 점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로apM 측이 새로 선출한 관리단의 출입을 막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

에이피엠엠앤씨는 헬로apM 건물의 각 층에 담당자를 배치해 입점 상인을 상대로는 월세를 내려주겠다면서 뒷돈을 요구했다. 입점 상인들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전화하라고 시킨뒤 점포주들이 비협조적으로 응대하면 가게를 빼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점포주들은 입점 상인이 나가면 공실이 되고 공실이 되면 공실관리비를 건물 관리주에 배상해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해당 층 담당자에게 연락해 시세를 물어본 뒤 월세를 깎아줬다. 에이피엠엠앤씨는 이 과정에서 협조에 응하는 상인에게는 관리비를 대폭 깎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아차린 일부 상인이 관련 내용에 항의하자 자료를 확인시켜주지 않고 사실 여부에 따라 최대 15일간 영업 정지를 받겠느냐는 협박을 했다는 게 관리단 측의 설명이다.

이들의 갈등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pM 관리단은 2000년께 헬로apM 상가를 지은 뒤 2002년께 개인에게 분양했다.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를 5년 동안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를 만들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에이피엠엠앤씨는 매번 관리인 선출을 임의대로 하면서 독점 운영해왔다.

이에 점포주들은 2011년 에이피엠엔씨의 독점 운영을 막고 원 취지대로 개인이 상가를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점포주들은 전체 점포주의 60%에 달하는 위임장을 확보해 임



/관광공사 제공

시총회를 개최해 신임관리단을 구성했다.

신임관리단은 전 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의 위탁계약 업무를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에이피엠엠앤씨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하고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지난 5월 14일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에이피엠엠앤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가를 무단 점유해 영업방해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관리단 측은 주장했다.

에이피엠엠앤씨 측은 "상가를 합법적으로 13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무단 점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수제버거, 입맛대로 주문해 드세요"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
수제버거 플랫폼 시스템
디지털 주문 후 즉시 조리



/맥도날드 제공

#대학생 이은영(가명)씨는 서울 창천동 맥도날드 신촌점에서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내 입맛에 맞는 '나만의 버거'를 만들어 먹는다.

매장 내 LED 패널로 구현한 메뉴 보드인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시그니처 버거 버튼을 터치하고 햄버거 빵으로 사용할 프리미엄 번부터 고기 패티 수, 치즈와 야채, 소스 등의 20가지가 넘는 식재료를 선택해 주문하면 된다.

특별한 매뉴얼은 없다. 그날 그날 먹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 먹으면 된다. 주문을 완료하고 결제한 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매장 전담 직원(크루)이 신선하게 조리한 나만의 버거를 가져다 줘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맥도날드(대표 조 엘린저)가 줄을 서지 않고 디지털로 주문하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과 소비자가 원하는 햄버거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수제 버거 서비스인 '시그니처'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시그니처 버거는 다양한 식재료를 조합한 '나만의 버거'와 맥도날드가 추천하는 '추천 버거' 등 2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나만의 버거는 기본 가격 7500원에 번, 패티, 치즈, 야채, 소스 등 모든 재료를 직접 선택해 주문하는 맞춤형 버거다. 추천 버거는 맥도날드의 추천하는 버거로 클래식 치즈, 핫 올 오버, 그릴드 머쉬룸 등 3종이다. 가격은 클래식 치즈버거는 6500원, 핫 올 오버 버거와 그릴드 머쉬룸 버거는 각 7500원이다.

주문 방식 또한 기존과 다르다. 매장 내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식재료와 메뉴 선택부터 주문,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주문 완료시 시그니처 전담 크루가 즉시 조리해 고객의 테이블로 서빙해준다. 향후 매장 도착 전에 모바일을 이용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휴가철 필수화장품 '반값'

더페이스샵

18일까지 '에프터 바캉스 세일'
자외선 차단제 전 품목 50%↓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13일부터 18일까지 자외선 차단제 전품목과 수분 크림·마스카라 등을 할인하는 '애프터 바캉스 세일(After Vacance Sale)'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한다.

자외선 차단제 전 품목과 땀 나는 여름철 사용하기 좋은 데오드란트 등 소취 제품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마스카라 등도 50% 할인한다.

대표적인 50% 할인 품목인 '내추럴 선 에코 아이스 에어퍼프 선'은 바르는 즉시 피부 온도를 -5℃ 식혀주는 쿨링 선블록으로 출시 4개월 만에 30만개 이상 팔린 제품이다.

이외에 '블란클라우딩 하얀 수분크림' '스밈 광채콜라겐 크림' 등 기초 제품도 30% 할인한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원주 산업관광 상품 운영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관광公, 원주 산업관광 활성화 MOU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원주 산업관광 상품 운영 업무협약식'을 11일에 원주시 투자상담실에서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원주시, 코레일과 함께 네오플램, 참존, 롯데관광, 홍익여행사, 코레일관광개발 등 5개 민간기업도 참석, 원주 산업관광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원주 산업관광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원주시와 공동으로 원주 산업관광 대상지 20여 개소를 답사하고 SNS 유명 블로거 초청행사와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코레일과 협업해 기차 연계 산업관광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오는 21일에 처음 출발할 예정이다. /최치선 기자

서남병원 진료부원장에 이상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조영주) 진료부원장에 이상화(가정의학·56·사진)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화 진료부원장은 공공의료단장을 겸임하며 이 분야 강화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 연구강사, 캐나다 Mcgill 의과대학 노인병센터 교환교수를 거쳤다.

현재 이화여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강동가톨릭병원 가정의학과장,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 노화방지, 평생건강관리, 노인병 등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기획이사, 노인병 연구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치선 기자

성신여대, 고교생 초청 전공체험 행사

성신여자대학교(심화진 총장)는 13일 성신여대 수정캠퍼스·운정그린캠퍼스에서 전국 고교생·학부모 1600명이 참여하는 '2015 성신 전공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실이 주관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초청해 대학 전공을 소개하고 진로탐색을 돕는 행사다. 성신여대는 인문·사회·법·자연·생활·간호대학 등 총 43개 학과(부)의 전공 체험을 준비하고 ▲오전은 공통프로그램 ▲오후에는 학과별 전공체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신여자대학교는 13일까지 '2015 성신 전공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성신여대 제공

성신여대 관계자는 "이번 전공체험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위해 진로진학특강·캠퍼스투어·입학상담도 마련됐다"며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서울여대, 과학 꿈나무와 '주니어 SW캠프'

서울여자대학교(전혜정 총장)는 8월 11~14일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가 주최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SW) 캠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니어SW 캠프는 미래창조과학부 'SW 웰컴즈 걸스(SW Welcome s Girls)'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을 발굴·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3박 4일 동안 합숙으로 진행돼 초·중학교 여학생과 어머니·여교사 60여명이 참가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과 실습을 통한 앱 제작, 교수와 여성전문가 강연, 진로특강·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복현명 기자



서울여자대학교는 14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캠프'를 실시한다. /서울여대 제공

갱년기 방치 땐 노화촉진 등 후유증 심각

닥터 Q&A

Q. 갱년기, 시간 지나면 낫는다던데… 꼭 치료해야 하나요?



나영철 원장
황금사과한의원 갱년기클리닉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병리학 전공)
前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래교수
現 오행발효한약 연구소 소장
現 오행약침연구회 회장
現 대한실용한의학회 회장
現 안산 '사랑의학교(야학교)' 교장 (1995설립~현재)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는 우울·대인기피 증세로 발전

한방치료로 신진대사 원활 노화 회복까지 가능케 해

A. 갱년기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누구에게나 오는 질환이다.

여성은 100%에 가깝게 갱년기를 겪고 남성도 10명 중 3명에게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과거부터 갱년기가 존재했기 때문인지 갱년기를 치료받는다는 말을 하면 괜히 유난 떠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본인이 갱년기를 인지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갱년기는 노화의 촉진기를 뜻한다. 따라서 갱년기가 심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 갱년기의 후유증이 힘들다는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본인이 갱년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갱년기로 인한 노화는 뼈의 다공화와 관절의 퇴행을 초래하고 피부의 탄력저하와 주름까지 급격히 증가시킨다.

이러한 신체적인 불편보다 심각한 것이 심리적인 불편이다.

불안과 불면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사회생활이나 가족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우울증, 대인기피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갱년기를 잘못 관리하면 노년기의 건강과 직결된다. 따라서 갱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건강한 노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내원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초기 갱년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갱년기 증상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긴 뒤, 점점 심해지는 증상으로 한의원을 방문한다.

이런 경우 초기에 방문한 분들보다 치료 시간이 길어지고, 효과도 떨어진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갱년기를 치료하고 대처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갱년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한방치료는 노화 증상을 억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회복까지 가능하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 신진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여성호르몬이 부족해도 노화를 예방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star bag

'날 보러와요' 캐스팅



배우 **천민희**가 영화 '날 보러와요'(감독 이철하)에 캐스팅됐다. 천민희는 극 중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미로 역을 맡았다. 앞서 이상윤, 강예원이 캐스팅된 작품이다. 영화는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살사페스티벌 MC 맡아



배우 **문정희**가 오는 29일 열리는 제주비치살사페스티벌 메인 행사의 사회를 맡는다. 문정희는 "제주비치살사페스티벌을 통해 라틴 문화를 보다 친근하고 대중적인 문화로 견인하고 싶다"고 전했다.



10월 콘서트 개최

가수 **김동률**이 오는 10월 9일, 10일, 11일 3일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5 김동률 더 콘서트'를 개최한다. 히트곡과 공연에서 사랑 받은 곡으로 채운 베스트 앨범 같은 공연이다.

솔로 아티스트로 컴백



가수 **스테파니**가 12일 정오 신곡 '프리즈너(Prisoner)'를 발표했다.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의 막내 멤버 천무 스테파니에서 마피아레코드에 새 둥지를 틀고 3년여 만에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왔다.



토론토영화제 초청

이광수, 이천희, 박보영 주연의 영화 **'돌연변이'**(감독 권오광)가 제40회 토론토국제영화제 '뱅가드'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 신약 개발 부작용으로 생선 인간이 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행복이 최고의 관리 비결이죠"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

고성희

지난 9일 종영된 OCN '아름다운 나의 신부'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었다. 시청자들 스스로가 결말을 선택하게끔 했다. 그래서인지 여운이 길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에 두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취를 감춰야 했던 여주인공 주영을 연기한 고성희(26)는 해피엔딩이라고 상상했다.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에 비해서 특별했거든요. 원래 잘 털어내는 성격인데 이 작품은 아직도 종영한 게 실감이 안나요. 그만큼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기도 했고요."

고성희는 2013년 영화 '분노의 윤리학'으로 데뷔해 배우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 '롤러코스터'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1년간 좌절을 겪어야 했다.

"'롤러코스터' 이후에 드라마 '미스코리아'를 하기까지 1년 동안 거의 모든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최종까지 가도 늘 떨어졌고요. 그래서 '미스코리아'에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웃음) 제 외모가 전형적인 미인상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감독님은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릴 수 있는 얼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익숙해지는 순간 매력이 될거라고 생각해 꾸준히 노력했죠."

고성희는 이후 18개월 동안 무려 4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린 끝에 처음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을 맡았다. 그러나 매회 에너지가 방전될 정도로 감정을 소모해야 했다. 스스로도 이렇게 감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작품은 처음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실 작품이 끝날 때마다 대표님을 졸라서 다음 작품을 하겠다고 나서곤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처음으로 휴식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힘들었죠. 거의 매회 오열하는 씬이 있었고요. 저는 26년을 살면서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감정에 어떻게든 몰입하기 위해서 OST를 무한 반복으로 듣기도 했고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려운 과제를 마치고 나니 배우로서 한층 성장한 느낌이에요."

고성희는 자신의 앞에 주어진 과제를 극복하는데 '인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작품에서 이승연 선배님을 만나고 느낀 건 '고성희 참 선배 복은 타고났구나'였어요. '미스코리아' 이미숙 선배님이나 '스파이' 배종옥 선배님도 그렇고 감사할 따름이죠. 이승연 선배님은 대사를 할 때 제 감정에 맞춰서 해주셨어요. 배려 뿐만 아니라 제가 연기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걸 먼저 눈치채고 자신의 일화들을 얘기해주면서 다독여 주셨고요. 정말 많은 힘이 됐어요."

고성희는 작품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배우다. 사람을 좋아하고 늘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 그 원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면에 자리잡은 외로움이었다.

"연기는 외로운 것 같아요. 수많은 스탭과 동료 배우들이 있어도 카메라 앞에서는 결국 혼자 해내야 하니까요. 현장에서 되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싶어요.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갑자기 뉴욕으로 가게되는 바람에 가족과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낯선 곳에서 이질감을 안고 살았으니까요. 밥도 화장실에서 혼자 먹었을 정도였죠."

한국으로 돌아와 연기와 만난 고성희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다. 지치지 않는 체력 관리 비결은 다름아닌 행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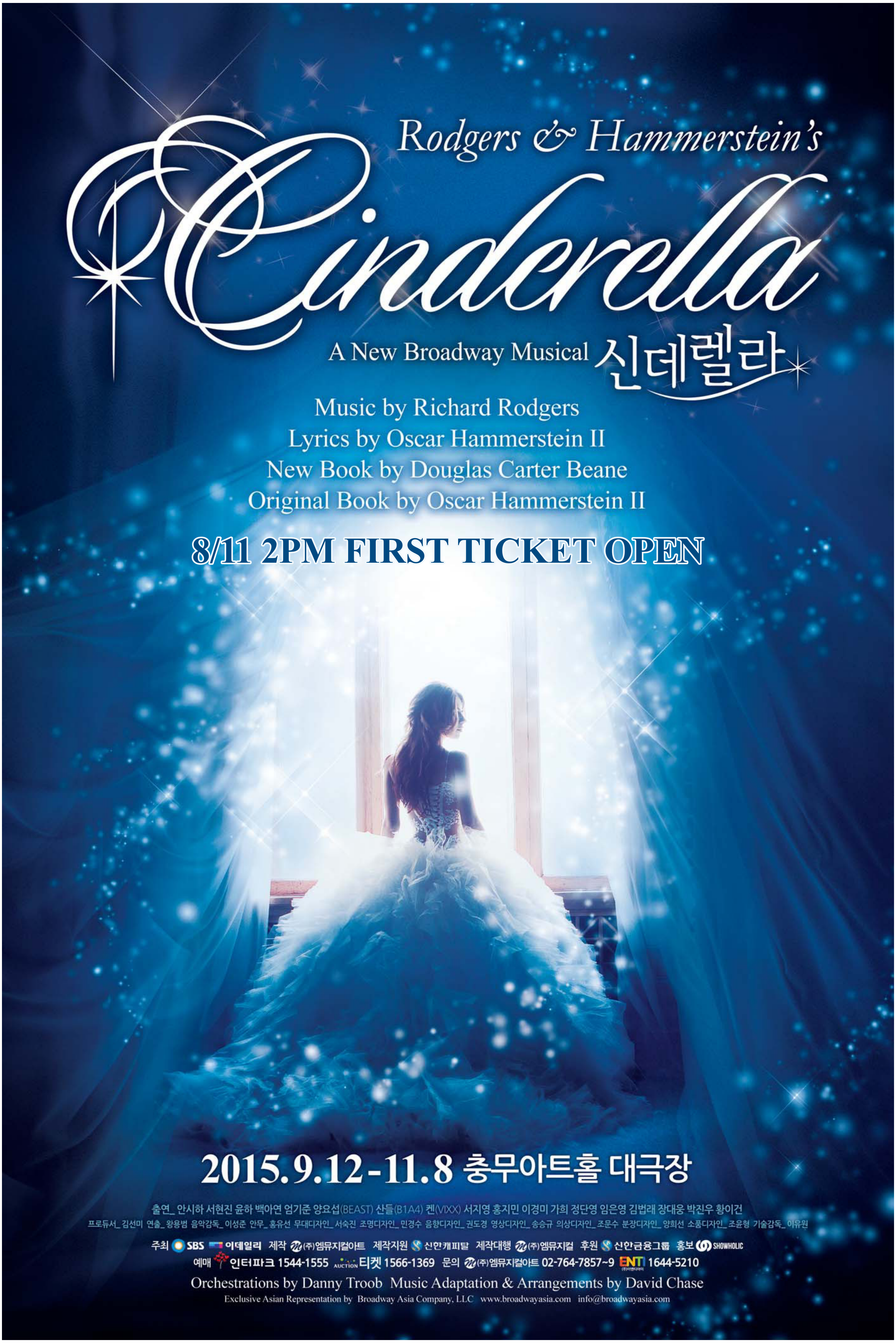
"비결이라고 하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에너지를 행복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다이어트를 해도 맛있게 하려고 하고 평상시에는 맛집 투어도 다녀요.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자주 만나고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그 에너지가 주변에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절 캐스팅했던 감독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서 뻗어나가는 밝은 에너지가 있다고요."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어려운 과제 끝마쳐… 배우로서 한층 성장
인복은 타고난 듯… 이승연 선배 배려 큰 힘
연기 외롭다는 걸 알기에 '비타민' 되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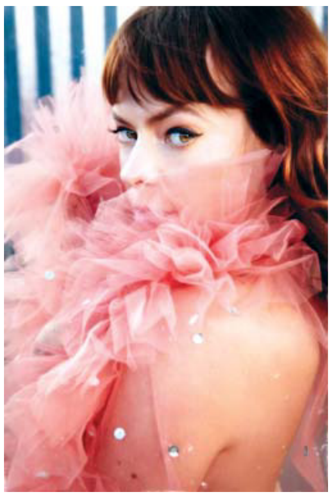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어둠 속 긍정적인 메시지 전하고 싶어

세번째 내한공연 앞둔 ◆ 렌 카

'더 브라이트 사이드' 발매 기념 공연
"색다른 방법으로 팬 만남 큰 기대"



호주 출신 가수 렌카는 한국에도 이제 친숙한 이름이다. 2011년 윈도우8의 광고 음악으로 쓰인 '에브리씽 앳 원스(Everything at Once)'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내한공연을 갖기도 했다.

오는 27일 오후 8시 홍대 예스24 무빙홀에서 세 번째 내한공연을 갖는 렌카를 이메일로 만났다. 그는 "한국 관객들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벌써부터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크고 모두 다 공연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며 내한을 앞둔 들뜬 마음을 전했다.

이번 공연은 음악 페스티벌 '뮤즈 인 시티'의 애프터 파티이자 최근 발표한 정규 4집 음반 '더 브라이트 사이드(The Bright Side)' 발매를 기념해 마련됐다. 새 앨범 수록곡부터 히트곡까지 렌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더 브라이트 사이드'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렌카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득 담은 앨범이다. 렌카는 "전작 '셰도우즈(Shadows)'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느낌의 앨범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셰도우즈' 발표 이후 출산을 한 경험도 새 앨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지금 삶에서 느끼고 있는 행복을 병에 담아서 간직하듯 앨범에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렌카는 "어둠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밝고 긍정적인 면이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렌카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이 어둠 속에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세상은 너무 부정적입니다. 나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번 내한 기간 동안 렌카는 공연은 물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한국 팬과 만날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색다른 방법으로 팬들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종이로 만든 특별한 세트도 선보인다. 렌카는 "다른 나라 공연에서 댄스 대회를 했었다. 한국에서도 분위기가 좋다면 자연스럽게 댄스 대회로 이어지길 바란다. 가장 독특한 스타일로 춤을 추는 사람에게 상을 줄 계획(웃음)"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동북아시아에서 살아남으려면

◆ KBS1 '명견만리'

오후 10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대륙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본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은 '통일'에 있다고 말한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시장화로 중국과 러시아만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통한 '경제통일'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



석 결과를 내놓는다. 요동치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본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가 발표자로 나선다.

◆ 올리브TV '비법'

오후 9시30분

숨은 고수들이 전하는 최고의 요리 비법이 전수된다. 인스턴트 짜장라면이 중국집 짜장면 맛이 나는 비법과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오므라이스 소스 비법이 공개된다.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40분

문숙과의 점심 데이트를 기다리던 범수 앞에 처가댁 식구들이 등장한다. 처가댁 식구들의 거침 없는 질문 공세에 범수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한다.



◆ MBC에브리원 'EXID의 쇼타임'

오후 11시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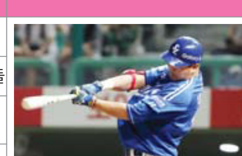
EXID 멤버들이 개인 라이브 방송에 도전한다. 리더 솔지는 연애에 서투른 여성들을 위해 오빠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15금 연애 비법을 공개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904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90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4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8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8회)	30 생생정보 55 시간을 달리는 TV (6회)	55 딱 너 같은 딸 (64회)	2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재) 20 스쿨랜드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광복 70주년 특집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문화유산 코리아 (재)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광복70년 기획 명견만리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10회)	00 밤을 걷는 선비 (12회)	00 용팔이 (4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여인의 향기>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광복70년 특집다큐 이상설, 불꽃의 시간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24시	3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역사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49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13회) (재)	00 MCOUNTDOWN Feelz in LA	00 KCON 2015			 ◆ 프로야구 (18:30) SK vs 롯데 (SPOTV+) 한화 vs KT (MBC SPORTS+) NC vs 넥센 (SKY SPORTS) 삼성 vs LG (SBS SPORTS) 두산 vs KIA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00 나는 자연인이다 (30회)	10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20시	50 JTBC 뉴스룸	00 울지 않는 새 몰아보기 (2회) 40 젠틀맨리그 (3회)	00 오늘 뭐 먹지? 30 한식대첩 끝장전 스페셜 (1회)	00 아시아 헌터 (1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15회)	40 비법 (1회)	30 비법 (1회)	00 <2015 빅 캣 위크>퓨쳐 캣	10 주말 N 영화 (525회)	
22시				00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2) (1회) 30 이것은 실화다 (14회)	20 미션 임파서블 3	
23시	00 썰전 (128회)	00 가이드 (4회)	20 오늘 뭐 먹지? (86회) 50 한식대첩 3 (12회)			
24시	20 마녀사냥 스페셜 (104회)	20 집밥 백선생 (13회) (재)		00 <도시남자의 원시 라이프, 트라이브맨> 아프리카의 부시맨이 되다	40 소녀	

프로-아마추어 농구 최강자 가린다



/KBL 제공

15일 최강전… 프로 10개·대학 5개·상무 등 16개팀 참가

정규시즌을 앞둔 프로농구팀의 시험무대가 될 2015 프로-아마 최강전 농구대회가 15~2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프로 10개팀과 대학 상위 5개팀, 상무 등 총 16개팀이 참가한다.

토너먼트 형식인 이번 대회 첫 경기은 2014-2015 통합 챔피언 울산 모비스와 부산 KT의 경기를 시작으로 프로 팀 간 대결로 짜여졌다. 16일까지 원주 동부-인천 전자랜드, 서울 SK-창원 LG, 안양 KGC-전주 KCC, 고양 오리온스-서울 삼성 등이 차례로 맞붙는다.

프로팀들은 예년에 비해 한달 정도 이른 9월 12일 개막하는 프로농구 2015-2016 시즌에 앞서 흥행열기를 미리 달굴 수 있는 기회다. 또 새로 영입한 외국 선수와 이적 선수의 기량을 점검하고 팀 조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 프로팀 간 경기에서는 2,3쿼터에 각 팀의 외국선수 2명이 출전할 수 있다. 지난달 하순 드래프트를 통해 소속팀이 정해진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 데이비드 사이먼(SK), 안드레 스미스(전자랜드) 등 외국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가 기대된다. 신장제한으로 193㎝ 이하 외국 선수를 뽑은 첫 시즌인 만큼 달라진 트렌드를 미리 맛볼 수도 있다.

2015-2016시즌 KBL 공식 사용구인 몰텐 농구공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 문태영(삼성)과 이승준·이동준(이상 SK) 등 팀을 옮긴 혼혈선수의 활약과 함께 양동근(모비스), 김선형(SK), 김종규(LG) 등 아시아 남자농구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국가대표가 소속팀에서 뛰는 것도 경기에 재미를 더하는 요소다.

프로 팀간의 대결에서 승리한 5개 팀은 17~19일 고려대·동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 등 대학팀과 대적한다. 당초 프로-아마 최강전은 1990년대 연세대와 고려대의 활약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농구대잔치의 영광을 재현, 시들해진 농구 인기를 높이고 대학 선수의 실력 발휘를 위해 마련된 대회였다.

2013년 대회 우승팀인 고려대는 지난 대회 최우수선수(MVP)인 이종현을 비롯해 문성곤 등이 국가대표팀에서 잠시 소속팀으로 복귀해 경기를 뛰는 만큼 대회 2연패와 바람몰이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 부전승으로 대진운이 따른 상무는 김시래, 최부경, 차바위, 이대성 등이 입대해 여전히 최강 전력을 유지해 2012년에 이어 2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

상무는 2012년 전자랜드를 꺾고 초대 챔피언에 오른 뒤 2013년 결승에서는 고려대에 아깝게 패해 이번 대회 설욕을 벼르고 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기성용, 햄스트링 부상 2주 진단

정규리그 2경기 이상 결장 불가피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쳐 전반전에 교체된 기성용(스완지시티·사진)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성용은 최소 2경기 이상 정규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사인 C2글로벌은 "기성용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며 "햄스트링을 다쳐 회복에 2주가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기성용은 지난 9일 치러진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원정에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 39분께 바페팀비 고미스에게 침투 패스를 내준 뒤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뒤 전반 41분 교체됐다.

경기가 끝난 뒤 개리 몽크 스완지시티 감독은 기성용의 햄스트링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 2라운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상했지만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으면서 최소 2경기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스완지시티에서 8골을 몰아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역대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팬이 뽑은 '스완지시티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이 때문에 이번 시즌 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발했지만, 개막전부터 부상 악재를 만나면서 힘겹게 새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김민준 기자 mjkim@

강정호, 2루타로 40호 타점·규정타석 기록

추신수는 3타수 무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 규정타석을 채우고 40호 타점도 올렸다.

강정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삼진 2개를 당했다.

이날 경기로 올시즌 341타석째를 기록한 강정호는 규정타석(341)을 꽉 채우며 타율 등 기록 경쟁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다. 시즌 타율은 0.293(304타수 89안타)를 유지했다. 또 첫 타석부터 장타를 뽑으며 메이저리그 94번째 경기 만에 40타점도 채웠다.

피츠버그는 세인트루이스에 3-4로 패했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침묵했다. 같은날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벌어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239에서 0.237(367타수 87안타)로 떨어졌다.

추신수는 1회초 무사 1루에서 깁슨과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으로 출루했다. 그러나 2-0으로 앞선 3회초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고 7회초에도 삼진을 기록했다. /하희철 기자



12일(한국시간) 조지아 파이차제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컵 결승에서 리오넬 메시(왼쪽)가 골을 넣은 뒤 다니엘 알베스와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바르샤, 세비야 꺾고 슈퍼컵 우승

메시 멀티골·페드로 결승골… 5-4 화끈한 난타전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난타전 끝에 세비야FC를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바르셀로나는 12일(한국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보리스 파이차제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컵 결승에서 리오넬 메시의 멀티골과 페드로의 결승골을 앞세워 세비야를 5-4로 이겼다.

UEFA 슈퍼컵은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UEFA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단판 승부를 벌여 유럽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세비야는 경기시작 직후인 전반 3분 에베르 바네가가 프리킥을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는 메시가 있었다. 메시는 전반 7분과 15분, 두 번의 프리킥 찬스에서 연달아 골을 넣으며 순식간에 2-1로 역전시켰다. 여기에 전반 44분 하피냐와 후반 7분 루이스 수아레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4-1로 일찌감치 승리를 가져가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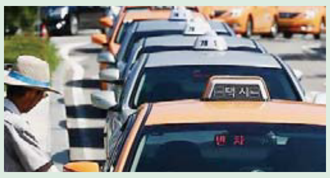
그러나 세비야는 후반 12분 호세 안토니오 레예스의 추격골을 시작으로 케빈 가메이로의 페널티킥, 에브헨 코노플리얀카의 연속골로 4-4 동점을 만드는 저력을 과시했다.

승부를 결정지은 건 공교롭게도 이적이 유력한 페드로였다. 연장 종료 5분 전 메시의 슛이 골키퍼에 맞고 나오자 페드로가 달려들며 결승골을 터뜨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결정지었다. /하희철 기자

Seoul's Private Taxi Union succeeded in the recent reformation

최근 개혁에 성공한 서울 개인택시조합

Up until recently, Seoul's Private Taxi Union has been struggling under the burdens of corrupt management. Through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union workers, however, reform has finally been achieved and with any luck, corruption mitigated. Leading this wave of reform was the Chairman of a private taxi business, Guk Chulhee, who helped organize the overwhelming voter turnout which far exceeded expectations and easily passed the reform referendums.



서울시가 6개월간 255개 회사의 법인택시 2만2787대의 경영·서비스를 평가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In an interview, Chairman Guk attributed this success in large put to the mobile polling used throughout the process, which channeled union workers' determination and gave them the ability to help determine the referendum issues.

Guk Chulhee emerged onto the leadership scene after his successful bid for the position as 17th Chairman of the Private Taxi Union in 2013. Prior to his election, Guk had experience working for Banwol Industrial Complex's labor campaign. With this reformation completed, Chairman Guk is turning his attention to other lingering problems, such as normalizing taxi fares and rescinding the current age cap of 70 for taxi drivers.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비리와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관개정에 성공했다. 선두에는 국철희 조합 이사장이 있었다. 과반이 넘어야 성사되는 이번 총회에서 총투표에는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번 성공의 핵심은 모바일투표 도입이었다. 평조합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해 안건을 선정한 것도 이번 모바일투표 성공에 한몫했다.

국 이사장은 2013년 17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 출신의 후보자였고, 서울대를 나와 반월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 이사장은 택시요금 현실화, 70세 연령제한 삭제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6		9			7		8	
	3			6				7
	4		9				2	
		3		2	1	8		
4			7		3			5
		2	5	8		3		
	9				6		3	
2				4			6	
	5		2			7		8

	9	3		5		6	2	
			4			8	5	
			9	1				3
	5				9	7		2
1		2	3				8	
2				3	6			
	7	9			1			
	6	8		9		3	1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6	2	9	1	5	7	4	8	3
8	3	1	4	6	2	9	5	7
7	4	5	9	3	8	6	2	1
5	7	3	6	2	1	8	9	4
4	6	8	7	9	3	2	1	5
9	1	2	5	8	4	3	7	6
1	9	4	8	7	6	5	3	2
2	8	7	3	4	5	1	6	9
3	5	6	2	1	9	7	4	8

4	9	3	8	5	7	6	2	1
7	2	1	4	6	3	8	5	9
6	8	5	9	1	2	4	7	3
8	5	6	1	4	9	7	3	2
9	3	7	6	2	8	1	4	5
1	4	2	3	7	5	9	8	6
2	1	4	7	3	6	5	9	8
3	7	9	5	8	1	2	6	4
5	6	8	2	9	4	3	1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역학공부로 제2 인생을 펼칠 수 있을까요?
유창한 언변에 학문 더하는 격… 열심히 하세요

무량도사 남자 68년 11월 24일 양력 20시 10분

Q 선생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메트로에 '사주 속으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멘 토가 돼 주시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해주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화물운전을 해오다가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상비 받은 것과 장애 수당으로 먹고 살지만 힘들어서 집사람이 식당에서 일을 하여 보태고 있습니다.

이후 메트로에 김상회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스크랩도 하고 역학 공부도 독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직업에 장애가 많습니다.

68년 양력 11월 24일로 제가 본격적으로 역학 공부를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A 하늘에는 예측하기 힘든 풍운의 조화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순환되며 찾아오는 길흉화복의 명운이 있습니다.

재복도 그러하여 남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다해도 내가하면 안되고 누구는 주식으로, 땅으로 돈을 벌어도 내가하면 하락하고 손실이 나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귀하는 말재주가 좋고 말이 분명하며 유창합니다. 거기에다 학문적인 이론이 합세를 한다면 옳고 그름이 있게 되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역학공부를 하고 계시니 말씀드립니다. 사주8자에서 생일주(生日柱)가 무술(戊戌)로 '산위에 산'이니 태산입니다. 술(戌)의 글자 하늘의 기운인 천문(天門)이 들어 있어서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일면 속세를 떠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술(戊戌)의 문자 형태로는 창과(戈)가 두 개가 겹쳐 있으니 과살(戈殺)로서 몸에 흉터를 지니게 되는 암시가 있어서 다치거나 송사(訟事)의 시비가 따르게 된 것이니 사주팔자의 흐름으로 갔습니다. 무술(戊戌)의 술(戌)은 개를 나타내니 개에게 물리고 몸에 수술 칼이 들어오는 모습이니 늘 조급해하지마시고 만인을 도와주거나 건강관련 약초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태극귀인(太極貴人)에 해당 되는 일주로서 태극은 시종(始終)을 의미하며 종래성과를 거두는 기쁨이 있지만 괴강에 음욕 살이 있어 순할 때는 한없이 순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려 불상사가 날 수 있으니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또한 음욕(淫慾)이라 하여 이성문제가 늘 내포되어 가정의 풍파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여지동(干與支同: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재혼을 하거나 부인의 병 치례가 염려되니 이런 점을 항상 유의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3일 (음 6월 2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다른 것을 취하려 마세요. **60년생** 어려운 일일수록 느긋하게 대처하세요. **72년생** 임자가 있다면 단념하는게 좋습니다. **84년생** 성실하게 대처하면 소득이 따릅니다.

소 **49년생** 갈길은 멀고 여유는 없으니 답답합니다. **61년생** 바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73년생** 지나친 과욕은 주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주위의 관심을 받게되는 하루입니다.

호랑이 **50년생**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62년생** 자신감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74년생**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의욕있게 추진하세요. **86년생** 주위의 칭찬을 들을 일이 많습니다.

토끼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장기적인 관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점진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줍니다.

용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뱀 **53년생** 이득보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신중하게 판단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77년생** 남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9년생** 받기 보다는 베푸는게 좋습니다.

말 **54년생** 엎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좋습니다.

양 **55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가 필요합니다. **67년생** 행동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는게 먼저입니다. **79년생** 밝고 따뜻한 색과 함께 하면 행운이 있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원숭이 **56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68년생** 고집보다는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80년생**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일을 그리칠 수 있습니다. **92년생** 과한 자신감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닭 **57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69년생** 윗사람의 말을 잘 새기세요. **81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금전운이 좋으나 방심하지 마세요.

개 **58년생** 노력을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70년생** 육신이 힘들지만 친구가 찾아옵니다. **82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겨 진행하세요. **94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돼지 **59년생** 고민은 많으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71년생** 지금보다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83년생**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95년생** 옛 친구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동생의 친일망언, 침묵은 긍정 아닌가요



송병형의 딴생각

박근령씨가 일본 포털 니코니코와 가진 인터뷰 동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이나 어린 시절에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에 박씨는 "형제·가족지간에는 서로 혈액형이 틀려도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젊은 날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에도 자유로운 몸으로 일본을 일부러 방문해서 (한국을 도와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언니의 대변인을 자처한 박씨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시절 일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박씨의 이야기에는 일본에 대한 동경과 한국에 대한 폄하가 곳곳에 묻어났다.

"(아버지 재임시절) 한국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센병(문둥병) 정착촌에 자활의 길을 열어보라고 씨돼지를 주고 또 계란도 많이 생산해서 팔라고 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만든 거니까 먹으면 안된다'고 해 팔리지가 않아서…(일본의) 황후 폐하께서 나자로 병원을 지어주시고 평생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까지 지어주셔서 그 덕으로 한국이 한센병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포항제철이 우리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는데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굴지의 세 일본회사에서 자본과 기술을 다 제공해주셔서 포항제철을 만들게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서 장충체육관을 하나 짓는 데도 필리핀의 기술과 원조를 받아서 지었다."

"60년대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했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가운데 인기상품이 뭐냐면 일제 신발주머니·학용품(이었다). 학용품을 우리가 잘 못 만들던 시절이라 친척이나 지인들이 일본에 가면 그런 선물을 사왔다."

6·25이후 미군의 초콜릿에 열광하는 아이들과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지한 정부가 있었다. 박씨의 기억에서 일본은 미국과 같은 원조국가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안보를 선물했다면 일본은 경제발전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일제 연필을 부러워하고 너도나도 일본 소니의 워크맨을 사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국산 연필이나 삼성 마이마이를 들고 다니다 창피해 하던 기억은 40대에게나 있을 뿐 이전 세대들은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박씨는 과거의 주관적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한국과 일본을 바라본다.

박씨의 인식은 식민지근대화론을 넘어 일본 극우의 생각 그 자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상하원합동연설에서 일본이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뒤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을 헌신적으로 쏟아부어 한국과 중국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 다수라고 했다. 실제 박씨와 같은 생각을 에둘러 말하는 사람을 찾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언니인 박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지 모른다. /정치부장

건설업계, '특사반대' 목소리 왜 나올까



기자 수첩
김 형 석
<경제부 기자>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입찰 담합에 따른 관급공사 제한과 과징금이 대폭 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 침체기에 들어갈 지 모른다"며 "과도한 징계가 자칫 업계의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들 건설사에 대한 특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특사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찰담합으로 이득을 본 건설사가 과징금감면을 받고 공공입찰 제한조치마저 사면하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건설사는 건설업계가 불황이면 업계 '위기'라는 말로 징계 철회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난 2013년 4대강 담합을 시작으로 영주다목적댐 건설, 경인운하, 인천·대구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호남 고속철(KTX) 사업 등에 참여해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에 부과된 총 과징금 중 감면액수는 5조5599억원에 달했다. 총 과징금의 70%에 육박하는 액수다.

또 대부분의 건설사는 담합혐의로 받은 징계가 확정되면 소송을 진행한다. 그동안 법원이 건설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3심 판결까지 길게는 3년 동안 징계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건설사의 노력도 있었다.

지난 2013년 말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는 공정경쟁과 자정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것. 이는 업계와 연구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건설산업의 윤리경영과 담합 방지 등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마련, 임직원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검토·추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올해 들어 주택사업의 호조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저유가 등 국제정세불안으로 해외수주가 감소해 건설업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가 남의 일인양 '담합' 문제를 지켜만 본다면 지금과 같은 특사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 지 않을 것이다.

社 說

북한의 도발과 대응자세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침지뢰 도발사건으로 남북한 관계가 얼음짱처럼 차가워졌다. 그렇지 않아도 냉랭하던 남북한의 소통창구가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막혀 버렸다. 기대되던 광복70주년 공동행사는 언감생심이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11일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데 이어 한미 양국 군이 최신무기를 동원해 '격멸훈련'을 벌이기로 했다. 훈련의 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한다. 게다가 군 당국이 1990년 이후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화공(火攻)작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마디로 현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북한에 경고 또는 응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의 행위는 비판 받고 규탄 받아 마땅하다. 비무장지대에서 이런 사건을 저질렀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와 심정도 충분히 이해된다. 혹시 모를 추가도발에 대비해 필요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분하고 노여워하는 심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호한 대응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긴장을 너무 고조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기보다는 사과 또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과거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도발했었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가 격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렇기에 불안한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간신히 유지돼 왔다. 지금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물론 어렵다. 당분간은 냉랭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라도 유지되는 것이 서로 격하게 대응하다 혹시라도 충돌사태를 빚는 것보다는 낫다. 지금 남북한 군사적 충돌마저 벌어진다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은 추락하고 만다. 그러니 칼은 갈아두되 함부로 휘두르지는 말고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불법 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생활 법률

퇴직금과 대출금 등 목돈으로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2층 세입자의 학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으로 신고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건물 매입 당시 전 주인으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 이제껏 별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상황. 졸지에 A씨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의 주인이 됐다.

매입 당시 이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는 A씨와 이미 건물을 처분한 전주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각 지역의 시·도·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허가 없는 용도 변경이 적발될 확률은 큰 편이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건물주는 건축법에 따라 승인 취소와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또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2~10%까지 부과되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해당 건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어진다.

A씨의 경우 불법으로 변경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재 책임자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다만 A씨는 전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 주인은 용도 변경을 속인 채 건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355조 제1,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 매매 시 불법으로 용도가 바뀐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과장급>△남북경협팀장 송현민
■ 해양수산부
◇승진 <고위공무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신현석 ◇임용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해광 ◇전보 <과장급>△어촌양식정책과장 김재철 △어촌어항과장 양영진 △항만투자협력과장 권준영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장 류재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오행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안완수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상우 ◇파견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부단장 이희영
■ 금융위원회
◇파견 △금융현장지원단 단장 김근익 △현장점검팀장 김성조 △현장지원팀장 김정명
■ 인사혁신처
◇전보 <과장급>△인사조직과장 박성희
■ 신한생명
◇승진 <부장>△변액특별계정운용부 정현철 <팀장> △정보보호팀 김종신 ◇전보 <본부장>△정보보호본부 신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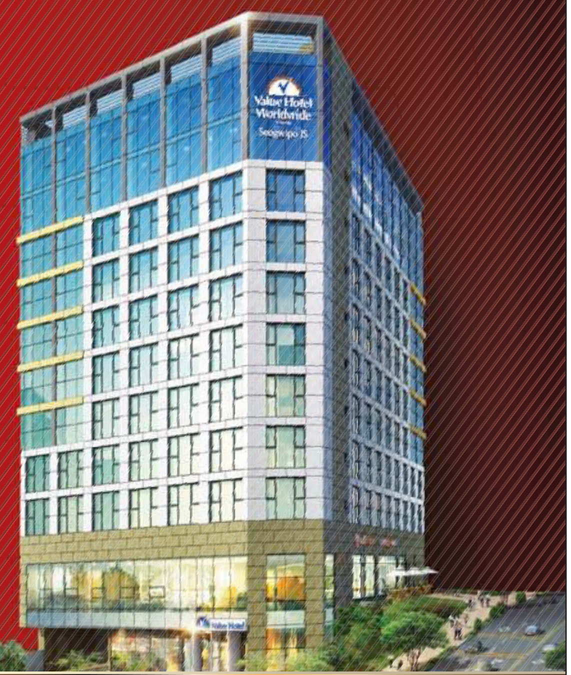
기사제보=02)721-9832

제주도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인 서귀포 혁신도시와 강정택지지구 사이 –
세계 8대 호텔체인이 드리는 글로벌 호텔의 고수익 투자가치를 잡으십시오

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분양개시

다 드립니다

부대시설 : 실내수영장 / 사우나 / 휘트니스 / 고급컨벤션 /카페 테라스 / 호텔뷔페





서귀포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이전, 연 15% 확정수익 [대출 50% 기준, 5%이내 이자포함], 세계 8대 호텔체인의 운영노하우

제주의 모든 가치를 담은 고수익 호텔–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FUTURE OF ISLAND	INVESTMENT OF ISLAND	HIGHCLASS SERVICE
위치가 그대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 제주 최고의 자리! 서귀포 혁신도시 앞에 미래가치가 집중됩니다	최대 연 15% 확정수익을 드리는 고수익 호텔! 제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선사합니다	세계 8대 호텔그룹의 운영노하우와 서비스! 세계적인 전문 운영·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 약 금 안 내
청약계좌 : 외환은행 630-009732-07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02)2097-8840

| 시행사 | (주)진성인터내셔널 | 시공사 | CHEONMA 천마종합건설 | 신탁사 | 아시아신탁 | 운영사 | Value Hotel Worldwide 밸류코리아 | 마케팅사 | (주)세종피엠씨

·위치 : 서귀포시 법환동 745–5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1,277.30㎡ ·규모 : 지하4층~지상10층 ·건축면적 : 938.42㎡ ·건폐율 : 73.47%(법정 : 80%) ·연면적 : 11,565.86㎡ ·용적률 : 701.00%(법정 : 1,000%) ·주차장 면적 : 824.08㎡
·외부마감 : 제주석, 화강석, 복층유리 ·주차대수 : 72대 설치 / 장애인주차 3대 ·공개공지 : 89.46㎡ (법정 : 1,277.30x7% = 89.41㎡ 이상)
·조경면적 : 208.25㎡ (법정 : 1,277.30㎡x 15%=191.60㎡ 이상)
·상기 위치도, 조감도, 단지조감도, 이미지사진, 아이소,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